

진실로 편안을 찾으려거든  
법부의 바깥을 익히지 마라.  
법부가 네 마음에 남아 있으면  
해탈은 아직도 멀리 있으리라.  
(法句經-불지품 278절)

# 東大新聞

발행인: 동국대학교 총장  
편집인: 동국대학교 교무처장  
발행처: 동국대학교 교무처  
주소: 서울시 중구 필동3가26(2260-3492)  
전화: (02)279-1270  
팩스: (02)279-4132

제 1089호

(주간)

1964. 1. 1. 등록번호: 단-10  
1955. 10. 13. 제 3 종우편물(가)급인가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91년(단기4324년) 11월27일 (수요일) [ 1 ]

## 이사장에 녹원스님 재임

### 종단 화합차원 이사전원 만장일치로 총학 성명서내고 이사자격 명시-발전안 제시요구



제17대 동국학원 이사장에  
오복원스님(위 사진)이 지난25  
일 일련 제113회 제단이사회에서  
재선입대 이를 둘러싼 학내

주체들의 반응과 그에 따른 제단의 행동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황진경스님을 제외한 이사12명 전원이 참석한 이날 제단이사회는 오전11시 워커히호텔에서 개최, 이사장선출을 단일안건으로 정해 곧바로 이사전원의 만장일치로 녹원스님을 재선입했다. 이로써 임기만료 8인이사 전원유임과 녹원이사장 재선임으로 이사회입원선출은 일단락됐다.  
이번 재선입원 오복원이사장은 89년 부경임시와 관련, 황

진경 전이사장이 물러난 뒤 후임으로 90년 2월20일 선출돼 임기 잔여기간인 20여개월동안 이사장업무 수행해 왔다.  
제17대 오복원이사장임기는 4년으로 오는 95년 11월22일까지이다.  
한편 이번 이사장재선임 결정에 학생회, 직원노조, 학교당국 등은 정확히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채 관망하는 중으로 알려지고 있다.

발전계획안 제시를 주장했다.  
또 제단사무처장에 대해 "교수·직원·의 임면권까지 쥐어주지하는 제단사무처장은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며 밀실야합 이사장선거반대, 이사자격과 조건명사등을 요구했다.  
△오복원이사장 약력  
-1928년 3월 경남 함천생  
-1941년 이탄용화상을 은계사로 하여 득도  
-1973년 본교 행정대학원 수료  
-1984 조계종 총무원장 취임  
-1985년 동국학원 이사장 취임  
-1990년 2월 동국학원 이사장 취임  
-1991년 11월25일 동국학원 이사장 취임

진경 이사 승인 거부  
교육부 상대취소 청구  
지난 89년 본교 입사부정사건으로 기소돼 지난달 25일 항소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 전기대 입시 4.57대 1

### 작년보다 감소 학력고사 내달 17일 치러

지난 25일 최종마감된 본교 92학년도 전기 신입생모집 입학원서 접수결과, 총모집인원 3천3백60명에 1만5천3백59명이 지원해 지난해 4.96대1보다 다소 감소한 4.57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취재박수 11면)  
교무처가 발표한 각 계열별 입학원서 접수현황에 따르면 △인문계가 2천60명 모집에 1만3백2명이 지원해 5대1 △사

연계가 1천1백30명 모집에 3천4백1명이 지원해 3대1 △예체능계가 1백70명 모집에 1천6백56명이 지원, 9.74대의 경쟁률을 보였다.  
캠퍼스별 접수현황을 보면 서울캠퍼스의 평균경쟁률은 3.49대1로 지난해 4.12대1보다 감소한것으로 나타났다. 연극영화학과가 예년과 마찬가지로 22.7대1(30/681)로 최고경쟁률을, 식품공학과가 1.45대1로 최저경쟁률을 나타냈다. 경주캠퍼스는 5.68대1의 평균경쟁률에 야간 경영학과가 16.67대1(40/667)로 최고경쟁률을, 전자계산학과가 1.96대1로 최저경쟁률을 보였다.  
한편 92학년도에 신설돼 전후기 분할모집하는 기계공학과는 1.63대1, 학과명칭이 변경된 컴퓨터공학(전 전자계산학)과는 2.46대1의 경쟁률로 집계됐다. 또 정원의 외국인 및 외국관 자녀지원자는 총23명, 체육특기자는 총21명(경주 2명)이다.

본교의 경쟁률은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인데 이는 지방 캠퍼스를 두고있는 서울소재 대학의 공통적인 현상이다. 특히 이번 입학원서접수의 특이한 점은 자연계(이공계열)가 인문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률이 낮으며 중·상위권 서울소재 대학의 서울캠퍼스 지원자가 지방캠퍼스 지원자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경향을 보였다. 지원률 감소원인으로 △대학입



92학년도 입학원서접수 최종일(25일) 오후5시15분 졸업문이 닫히려는 순간 한 수험생이 달려오고 있다.

## 교수동정

▲김태준(국어국문학)=오는 12월 5일부터 12일까지 18세기 동아시아 문화교류연구에 연구발표자 중국체류.  
▲김영민(영어영문학)=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있는 MLA 총회 참석차 오는 12월25일 출국.  
▲오국근(영어영문학)=MEO에서 기획하는 불교유적 탐방 다큐멘터리 '인디아'촬영의 자문위원으로 참석차 위해 오는 12월1일 인도로 출국.  
▲서석효(경주캠퍼스 외예과)=지난 17일부터 지난 22일까지 'Endothelium 심포지엄' 참석차 영국 런던 체류.

## 알림

이번 동대신문(제1089호-11월27일자)이 2학기 중강호임을 알리드린다. 한해동안 보내주신 질책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내년에는 더욱 새로운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녹원이사장 재임배경과 의미

조계종단의 화합차원에서 이사전원 만장일치로 재추대됐다는 제17대 동국학원 이사장선출은 학내의 곳곳에서 모아졌던 관심과 기대에 못미치는 결과로 일단락됐다.  
이사장선출을 둘러싸고 이사들내 격돌이 예상, 한때 긴장이 감돌기도 했지만 이번 재선임은 아직도 녹원스님의 이사회내 신임도가 견제할 수 없었다. 또 총선을 앞둔 정치입장과 종단내부에 일정관계가 있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 종단화합차원에서 이사전원 만장일치 재선임에 긍정적 반응

보이는 한편 새로운 이사회출발을 기대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또 학교 한 관계자는 "이번 이사회에서 이사들의 제단 무자지도 거론됐더니 부동산환용안등 재정확보에 기대를 한다"고 밝혔다.  
제23대 총학 황진경은 오늘(27일) 제17대 동국학원이사장 선출에 즈음하여 "성명서를 내고 제단비리척결, 장단기

## 산림기술대학원 신설인가

### 1개학과 6개전공 60명 모집

본교 산림기술대학원이 지난 20일 교육부로부터 신설인가를 받았으며 오는 92학년도 전기기부터 신입생을 모집한다.  
이번에 신설된 산림기술대학원은 야간대학원으로 1차 및 2차신입기술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자에게 전문기술 및 경영관리 이론과 실재를 연구·교수하여, 특

## 김영화동문등 행정고시합격

### 일반행정·검찰사무직에 3명

총무처가 지난 23일 발표한 제35회 행정고시 최종합격자 2백31명중 본교 우상원(사학 86점), 이경구(역사교육 86점) 등문이 일반행정, 김영화(행정 91점)등문이 검찰사무직에 각

## 92 대입 원서마감

취를 잡는데는 힘이센 코끼리·소·말보다도 사나운 사자나 호랑이 보다도 고양이 격격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오리발이 빠다고 놀리고 잡아 당기면 오리의 타고난 천품이 죽어버릴 것이요, 학의 다리가 너무 길다고 잘라버리면 학은 제구실을 못하게 마련일 것이다. 오리다리는 짧은데 밧이 있고 학다리는 긴 그대로 밧된 것이다.

## 변수

고방범 보다는 적장을 조기에 발견해서 진로결정을 하는데 남의 눈치나 체면을 볼 것이 아니라 하겠다.  
만약에 힘이센 동물들 찾는데 코끼리·소·말 일컷이고 사나운 동물들 구한다면 사자나 호랑이일 것이다. 그러나

## 복합산을 무너뜨려 한강을 매

우리는 복합산의 무너뜨려 한강을 매우는 것이 평등이 아니라 복합산은 높은데로, 한강은 깊은데로, 밧된 평등이다. 그와 같이 자기 적성을 확인하면서 백옥같은 흰발을 얻으면서 받치는 농부의 무아의 구슬땀이나 기능공들의 땀방울이 다 같이 신성한 것이요, 소중한 것이다.

## 재단혁신없이 이사들 유임

### 등록금 인상등 재단문제 제기

이번 이사장선출을 바라보는 학내구성원들은 재단혁신투쟁이 여전히 유효한 과제라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더욱이 이사8인유임후에 이사장재임결정이 적잖은 아쉬움을 표명할것으로 알려졌다. 89년 부정입사사건이후 학내의 비판대상이던 이사들이 2년이 지나도록 퇴진은 커녕 오히려 유임되는 한편 그동안 무능·부정비리이사로 거론됐던 이들에 대한 책임규명이나 처리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아무것도 변한게 없다는 게 계단을 지켜보는 이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더욱이 동국발전신속, 산업기

## 동국발전신속, 산업기

관과에 전기전자, 건설공학, 화학공학, 식품공학, 산업공학, 농업자원전공등 1개학과 6개전공분야로 정원은 총 60명이다.  
한편 일반대학원에는 의학과 석사과정(12명)이 신설되었으며, 이공계열 원년대학과 30명등 총 42명이 증원돼 92학년도 전기 신입생 추가모집을 오는 92년 1월18일 영어, 전공 필기 고사와 구술고사 및 면접을 통해 진행한다.

## '동국인의 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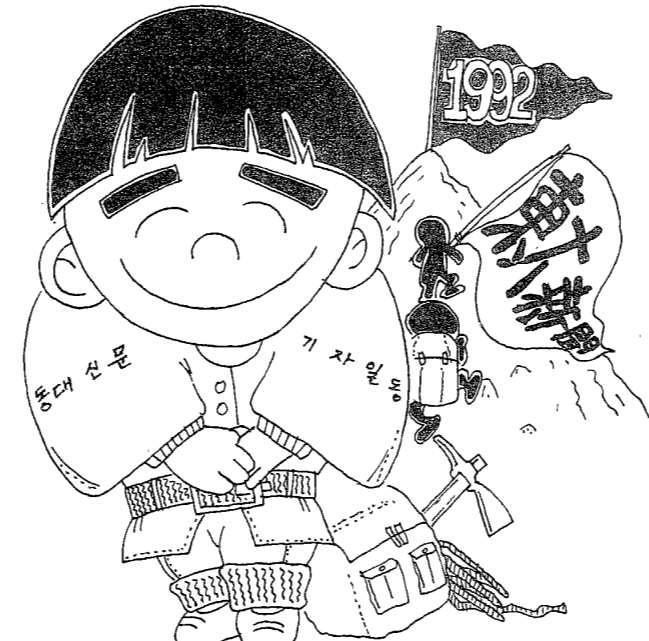
### 오는19일 롯데호텔서

'제20회 동국인의 밤'이 총동창회(회장=정재철·정치 52점) 주최로 오는 12월19일 오후 6시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열린다.

여러분의 눈과 귀가 되어 시대를 지키는 파수꾼 - 東大新聞

# 살아 숨쉬는 동국인의 신문이 되겠습니다

불교적 색채가 좀더 깊었으면 한다  
학교의 전례는 바리보는 시작이며 학교 발전은 커야  
부경시나 대우련 해수바다의 근간이요 반석속 후면의  
잔잔과 여유가 이루어지나 하겠음  
학내의 발전과 동국인의 긍지를 관철사가 주재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편향된 운동장서  
대경지에서 빛이아야 하겠음



동국발전속엔 대학생으로서는  
너무 무늬만 내용 등이 빈약하다.  
인성정도 신변이 필요하다면 생각한다.  
· 학내·교수·학생의 조화 내지 조화없음은 산란적  
· 국가 차원보다는 학교내에 한정되어야 한다.  
· 대략적인 선을 구별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경험의 지로 연구논문과 생활을 밝히기 위해  
분심히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힘내세요!  
영심히 뒤따라주시고. 이번 뒤는 (만학부  
생)만 아니라 명망있는교수가 계시니.

위 글은 동대신문 평가전문에서 교수, 직원, 대학원생, 학부생들이 보내준 격려와 비판의 소리입니다.

동대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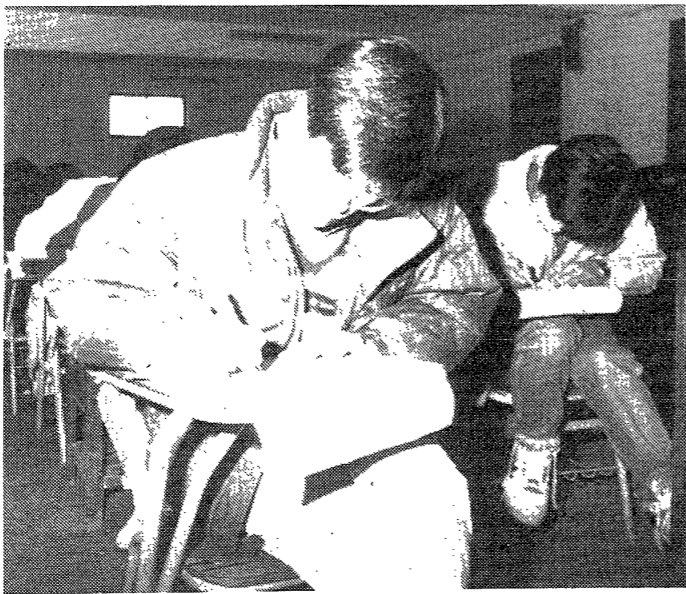
학술

제2의 을사조약 전시접수국 지원협정 결사반대한다

◇ '시험지옥'에서 벗어나는 시험방법 없을까

# 학생 스스로 출제자되는 방식 '바람직'

동서양의 교육제도를 비교해 보면, 서양에 비해서 특히 동아시아가 인재선발의 방식으로 교육을 발달시켰다고 한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과거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身·言·書·判의 네가지 표준으로 관리를 뽑았고, 일찍부터 과거제도가 발달하여 동서양 시험제도의 모범을 보이기도 했다. 아직도 사법고시와 같은 국가의 시험에서는 과거 시험 방식의 논문제시험의 전통이 남아 있지만, 대졸교육시대의 현대 시험방식은 드디어 시험지옥의 오명을 얻기까지 이르렀다. 허버트 리드는 '평화를 위한 교육'이란 책에서 시험을 통한 경쟁이 결국 국가들 사이의 전쟁의 방법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고 비판을 퍼부은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리드식의 이상주의를 빌어 말한다면 평화를 위한 교육에서는 경쟁시험을 없애버리는 논리가 가능하다. 교육평가의 이론에 아무도 필자는 다만 현재의 시험제도가 방법이 학생의 인격에 나타난 좋은 변화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못한다는 데만 타가와할 뿐이다.



◇ 시험은 학습자(학생)이 인격변화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되어야 한다. (사진은 지난 26일 지리교육과 1학년 시험모습)

## 구태의연한 방식, 컨닝등 부정행위 초래 시험은 교육의 연장으로 다양한 형식 모색돼야

또다시 시험의 계절이 돌아왔다. 기말시험·취직시험·입학시험·입사시험에서 사합·행경고시에 이르기까지, 대학가와 나란한 이른바 시험의 홍역을 치르느라 그야말로 시험지옥이요 시험전쟁이다. 시험지옥이란 말은 국어사전에도 들어있어, 응시자가 너무 많으므로 시험이 혼란하여 늦게 되는 심한 교통을 지옥에 비유하고 있다. 그러나 시험이 지옥이라고 한다면 그 보다는 시험이 교육목표나 인격에 나타난 좋은변화를 측정하는 방법이 되지 못하게 하는 여러가지 부조리를 지나칠 수가 없다. 출제의 잘못, 부정행위, 점수조작등 이런 비교육적 사태와 '지옥'의 용어를 동원하지 않아도 되고 좀더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인격의 변화를 파악하면서도 교육적인 시험방법은 없을까?

내가 담당하는 교과의 시험은 개강과 함께 시작되고 설명할 수 있는 강의 방식과 함께 시험의 방법을 제시한다. 학생들은 강의 계획에서 각각 자기의 흥미를 끄는 한개씩의 연구발표제목을 정하는 동시에, 이와는 별도로 기말시험 문제를 스스로 개발하는 과제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한학기를 공부하는 동안에 자신의 발표제목을이 에 스스로 흥미있는 주제 하나를 골라서 문제를 만들고, 이것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여 보고서와 함께 면접시험의 자료로 삼는다. 말하자면 학생 각자가 자기 시험문제를 만들고 이것을 완하기 동안 집중적으로 준비하여 기말시험 교수에

게 구두로 보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수강자의 시험문제는 개인적으로 다르며, 이 문제는 수강자 스스로가 개발하여야 한다. 출제의 잘못이 있을 수 없고, 남의 것을 보고 쓸 수도 없으며, 컨닝 페이퍼도 아무 쓸데가 없다. 학생 스스로가 문제를 발견하여 문항을 만들고, 이 문제의 해답을 얻기위한 한 학기 동안의 공부가 있어야 하며 일정분량의 보고서를 만드는 동안에 스스로 공부한다. 정해진 분량만 학생들과 함께 모여 구두로 교수에게 보고하고, 교수의 질문에 대답함으로써 요령있게 발표하는 훈련을 할 수 있다. 교수로부터는 문제의 발전 방향은 적당하며 보고서 작성의 방법, 문단 나누기, 발표의 태도와 생각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지지를 받고, 또 서로 대화하며 시험할 수 있다. 이것은 대학교단위에서 전 뒤로 20여년간 내가 시험해 온 시험방법이고, 학생들로부터도 꽤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던 방법이다.

이런 학기 국문학과 '고전문학사' 시험을 예로 들면, 2학년 학생들이 주로 들었지만 꽤 만족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첫날은 8명이 시험을 치렀다. 강선규는 '발해의 문학'을 주제로 들고 왔는데, 특히 지금까 지 우리 역사와 문학사에서 뒤쳐졌던 이 분야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과 발해문학의 특징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우리 문학사에 발해문학을

는데, 한국의 대표적 건국신화와 비교해보고 싶은 생각에서 이 주제를 다루었다고 했다. 사유리는 특히 한국신화가 일본신화와의 달리 개벽신화보다 건국신화로 발전된 과정을 비교하고, 단군신화의 신화소들의 분석에서 여러 이질적 문화의 복합적 구성을 지적했다. 앞으로는 한·일 신화의 비교를 해보고 싶다는 흥미를 느꼈다고 했다. 학기 중에는 '재일교포문학'의 문제점을 발표하여 학생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준 그의 공부 폭은 이제 한국문학사의 단군신화로부터 차체의 재일교포문학까지 걸치게 되었다. 강소영은 다시 '공주의 노래'의 배경설화 해석의 문제를 들고 나왔다.

학기가 시작되자 제일 처음으로 이 상대가요를 다른 강양은 지난날 '북한에서의 공주의 노래' 해석에 대하여서 학술발표회에 가지고 나오더니 이번 시험에는 이를 더 발전시켜 배경설화의 해석을 다루었다. 세번에 걸친 발표를 통해서 스스로의 공부의 발전을 확인하고, 발전의 좋은 모범을 보였다. 문용성은 '願住生歌의 작자문제'를 들고 나왔다. 그는 미 타신앙을 바탕으로 서명정표에 왕생을 염원한 이 노래의 작자를 廣德이라 전제하고, 연 구사를 개관하면서 '삼국유사'의 기록을 의식하는 연구태도를 비판하기까지 했다. 학기 중 발표에서 사가의 '歸去來辭'의 문제를 훌륭히 발표했던 문용은 앞으로 불교문학을 전공할 것이며 대학원에 진학하여 이를 전착하겠다는 의지가 뚜렷해졌다. 지난해 학과 학술발표회에서 강소영양과 함께 2학년

으로는 드물게 '신비평의 한국적 수용'에 대하여 발표한 경력을 있다. 그때 나는 서양사람의 이론과 이론을 나열하는 이 신비평에 대한 발표를 약간 후평했었지만, 문용의 폭넓은 생각과 조리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었다. 2학년은 겨우 마지 면서 그는 벌써 스스로 병아리 학자가 된 자각을 뚜렷이 보여주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밖에도 김영희는 '판소리에 나타난 현실인식'을 다루었고, 김영실은 '고려문학사와 과거제도'를, 신향숙은 '풍자 사설 시조'를 다루었고, 김우재는 상대가 요 전반의 문제를 다루었다. 발표가 끝나고 차를 함께 나누어 마시며 강의의 평가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각자 발표수업에 참여하고 스스로 문제를 내어 구두시험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자료를 찾고 논지를 정리하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했다. 그러나 학생들의 발표에 바 람적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렇게 해서 내가 이번학기에 맡은 100여명 학생을 다 만나 면접시험을 하면 2주간을 온통 학생들과 씨름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시험인 동시에 교육의 장이요, 또 면접시간이기도 하다. 모든과목을 다 이런 방법으로 시험할 수는 없고 특히 학생이 많은 교양과목인 경우 또 다른 시험방법을 생각해 내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시험도 또한 교육의 중요한 일부이며, 이것이 학생의 인격의 좋은 변화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금의 레포트 제출이나 필기고사 형태의 시험제도에서 또 려 새로운 방법들이 끊임없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김대준  
(문과대 국문학과 교수)

◇ 대학원 교육환경의 문제

현재 각 대학은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발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교육부에서도 마스터 플랜을 제시한 학교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걸맞게 동국대학교 대학원은 타 학교에 비하여 성장 속도를 가속화시키지 못한 까닭에 상당히 뒤쳐져, 이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버렸다.

는 복잡한 환경을 야기하게 된다. 이에 비하여 인문·사회계열은 현재 동국대 석·박사 위에 89년도에 인문·사회계열의 연구실을 만들어 활성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30여개의 학과가 유사과별로 2, 3개 학과가 한 연구실을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 가능한 연구실은 연구실당 8명이다. 이러한 연구공간은 학생수에 비하여 열악한 형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실은 타 대학원에서

## 획기적 투자만이 '실길'

### 3개 학과가 한 연구실 사용 조교, 각종 업무로 "연구시간 없다"

타 학교에 뒤진 몇가지의 문제들을 짚어 보면, 첫째는 석·박사 과정의 정원을 늘 수 있다. 불과 수 년전만 하더라도 장구한 역사와 함께, 인재를 배출하던 본 대학원은 이제는 정원면에서 석·박사 합격천명을 밑도는 열악한 수준이다. 수명명의 정원을 자랑하는 타 대학원의 정원에 비하면 과거 우세했던 시절에 대한 회의감마저 생겨난다. 대학원 정원에 대하여 한 보직교수는 수년전 문교부에서 대학원 정원을 늘릴 경우 적극 지원하겠다는 시정 유독 본교만이 정원증설을 거부하여 지금에 와서는 늘리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안타까움만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둘째는 정원문제 즉 수적인 측면에서와는 반대로 질적인 측면에 대해 살펴보자. 대학원은 현재 전임교수와 전공강의실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강의는 대부분 교수연구실을 사용하고 있으며, 학생수가 많은 경우는 특수 대학원 강의실을 빌려 사용하는 열악한 실정에 처해 있다. 이·공계통 또한 대학원 전용실습기구 및 기자재는 없으며 학부의 실험기자재를 사용하여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적인 어려움과 더불어 인문·사회계통의 연구자료 미비는 논문을 작성하기 위하여 과제도 사실이나 참고정간실 등 도서실을 사용해 온 원형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10여개의 참고목록을 신청하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자료는 항상 3, 4개 혹은 반수에 불과하고, 자료를 찾아서 타 대학이나 국회, 기타 도서관, 연구소를 찾아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시설, 자료 문제와 더불어 제기되는 문제는 공간의 문제이다. 이·공계통의 연구공간은 실험실을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연구실에 현재 3-4명씩의 원생들이 같이 연구활동을 하면서 학부생들의 실험을 도와주는 실험조교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조교의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실험실에 가까운 분리된 연구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와 더불어 행정조교의 실험, 연구, 업무가 결합되

는 보기힘든 연구공간으로서 자량(?)할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공간을 계속하여 확장, 발전시키지 못하면 하더라도 장구한 역사와 함께, 인재를 배출하던 본 대학원은 이제는 정원면에서 석·박사 합격천명을 밑도는 열악한 수준이다. 수명명의 정원을 자랑하는 타 대학원의 정원에 비하면 과거 우세했던 시절에 대한 회의감마저 생겨난다. 대학원 정원에 대하여 한 보직교수는 수년전 문교부에서 대학원 정원을 늘릴 경우 적극 지원하겠다는 시정 유독 본교만이 정원증설을 거부하여 지금에 와서는 늘리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안타까움만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연구의 질은 개인의 부단한 노력에 의하여 향상될 수밖에 없으며 연구원들의 지속적인 개선이 당면하게 요구되고 있다. 대학원 장학금의 현재 수준은 학기당 각 과별 30만원에 이른다. 전체 원생중 조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율이 25%이고 이들 조교는 장학혜택을 받고있으나, 조교의 장학혜택이 노력의 댓가인지 순수한 장학의 의미인지는 해석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순수 장학금 즉 연구활동을 도와주기 위한 장학금은 외부장학금과 위에 언급한 장학금이 전부이다. 액수와 혜택인원 면에서 타 학교에 비하여 월등하게 차이가 난다.

모 대학의 대학원은 교수와 원생이 Field Study라는 제도를 통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아 외국에 가서 현지의 문제를 연구하는 추세이고 보면, 본 학원의 장학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가히 알만한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는 상태이고, 현재 대학원 교학과나 대학내의 어느 부처에서도 대학원 발전을 위한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앞으로 대학원의 모습은 수년의 시간이 흐른 뒤 어떻게 변할 것인가는 불을 보듯 자명하다.

김병효  
(정치학과 박사과정)

### 학술정보

### 일본학연구소 주최 국제학술강연회

#### —한·일 근대화 와 전통사상의 상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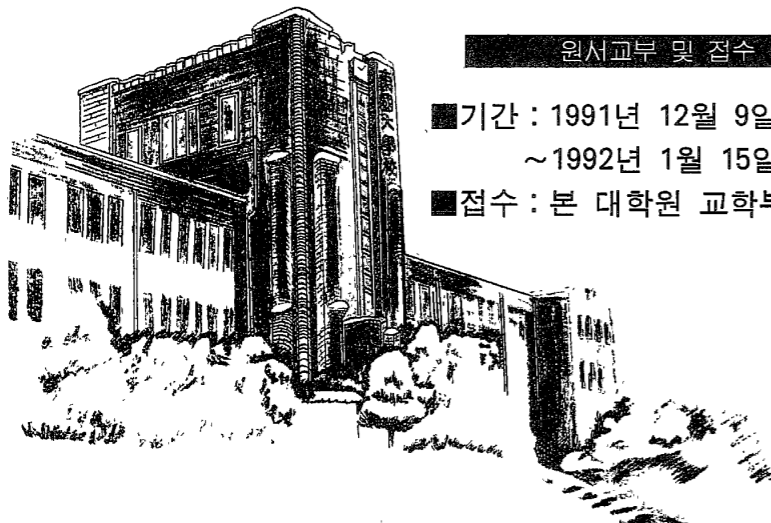
일본학연구소 주최 제16회 국제학술강연회가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의 근대화와 전통사상의 상극'을 주제로 오는 12월5일 동국대(L306)에서 열린다. 강사원(일어일문학)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강연회는 △일본에 있어서 저널리즘의 근대화와 전통(高木教典·동경대) △한국사회의 근대화의 기능과 역기능(고영복·서울대) △근대화에 있어서의 유교평가의 역할(杉山光信·동경대)의 기조발제와 주종원(동국대), 김대환(이화여대), 홍승직(고려대), 이시성(성신여대)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高木教典교수는 일본 저널리즘의 특징을 설명하며 "대부분 선진국의 신문종립형태는 지방지와 전국지의 병존구조이나 일본은 전국지의 독립·집중화가 상대적으로 강하다. 그러나 이 점에 인문기업은 생존과 상업적 번영을 위해 정보를 상품화하려 한다"며 한국인론은 언론표현 매체기능을 중시하는 근대화·정보화의 길을 모

색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고영복교수는 60년대부터 본격화된 한국근대화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다루는데 근대화의 순기능을 △사회적 발전에로의 의욕고취 △인간이 사회변혁의 주체임을 자각 △중산층 대 등으로 보고 있고, 역기능으로 △가부장주의 해체현상 △노동계급의 계급의식을 체제내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점 △가치관의 혼란 등을 제시했다. 杉山光信교수는 현재 일본에 있어서의 유교·전통사상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논하면서 "일본 인론, '유교르네상스'론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45년부터 60년대 초까지 일본사회에서 부정적으로 보았던 전통사상이 긍정적으로 되었다는 것이며 봉건적 요소로서가 아닌 기업경영방식으로 까지 전통·유교사상이 존중되고 있다"며 동양사상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설명한다.

(사회부)

## 산업기술대학원 (新設 야간)

산업역군의 요람인 본교가 21세기 첨단산업을 이끌어갈 인재양성을 위하여 산업기술대학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원서교부 및 접수  
■기간 : 1991년 12월 9일 ~ 1992년 1월 15일(수)  
■접수 : 본 대학원 교학부

동국대학교

### 1992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전기)

1. 모집과정 및 인원  
석사과정: 00명  
연구과정 및 관리자 과정: 약간명
2. 모집 학과 및 전공  
■산업과학과  
전자, 전기공학전공(전자·전기) 건설공학(토목·건축) 화학공학, 식품공학, 산업공학  
농림자원(농·임)  
※출신학과 전공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함
3. 전형일시 및 장소  
1992년 1월 18일(토) 오후2시 본 대학원
4.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5. 특 전  
○고급공무원, 국가산업체근무, 기업체 중견간부, 입학전형시 우선 고려  
○공무원, 국가산업체 간부 장학금 혜택  
○본대학원 졸업후 본교박사과정 지원가능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대학원 교학부에 문의 바람

연락처 ☎ 260-3602  
☎ 260-3603

### 1992학년도 전기 대학원 신입생 추가 모집

대학원 의학과 신설에 따른 추가 모집

1. 모집학과: 의학과
2. 모집과정 및 인원: 석사과정 0명
3. 전형일시 및 장소  
1992년 1월 18일(토) 오전 10시  
본 대학원(서울캠퍼스)
4. 전형방법  
1) 필기고사: 영어, 전공  
2) 구술고사 및 면접
5. 제출서류  
1)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2) 대학졸업증명서(학위등록번호 기재) 1부  
3)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4) 주민등록 초본 1부
6. 지원서 교부 및 접수  
1992년 1월 8일(수) - 1월 10일(금) 17:00까지
7. 기타  
1) 지원서 및 모집안내 대금: 2,000원  
2) 전형료: 30,000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교학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260-3093, 3094

동국대학교 대학원

사회기획

제2의 을사조약 전시접수국 지원협정 결사반대한다

올바른 대중투쟁으로 독재에 항거하는 민중합성

머릿말

내년은 총선과 대선을 비롯한 선거가 연달아 있고 풀가고의 무역적자등...



3) 대선과 전민항쟁

를 획득하면서 노태우와 합작해 격돌했던 시기였다. 신민당이 가두행진에서 그 누구의 주목을 끌지도 못했으며...

한다. 민주대연합건설을 위한 연합조직을 강화하여 각 계급 계층의 통일적 요구를 수렴해야 한다.



이데올로기 공세로 민주세력 분열 조장 전국 연합 중심 범 계급계층별 강령 합의해야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잘못된 경향들을 경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선거를 가진자들의 정치판으로 규정하고 선거와는 상관없이 관념적인 선전선동을 해야 하는 것에 주의를 두는 것은 자칫 민중들의 고립화를 초래할 수 있다.

권력대안의 문제

권력대안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권력대안이라는 시기에 아무런 권력의 대안이나 상이없이 추상적, 관념적, 당위적인 민중의 독자적 정치 세력화라는 구호만 외친다는 것은 민중앞에 정치적 무능력자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범 계급계층별 강령 합의해야

민·학생을 중심으로 한 대중조직의 재정비와 상설연합의 태두리에 힘을 모으려는 투쟁을 기반으로 선거국면을 각 계급 계층의 정치적 진출공간으로 환유해야 한다. 총선이후 5-6월을 거치면서 각 계급 계층의 조직적 진출이 활성화되는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 예상된다.

87년 투쟁의 오류와 한계

87년의 오류와 한계를 되짚어보는 것은 민중적 분노가 나름대로 성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87년 민주투쟁은 사분오열 되어 있었다.

격들기 민중진영의 과제

폭발하는 역동적 정세를 이해하는 것이 단순히 시기구분에서 그치지하는 것이 아니다. 민중진영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민중진영의 급박한 대안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고민의 거리가 되어야한다. 현재로

강 우 원

더 이상 우리는 선거환상이나 혁명론에 급급해 하지 않는다. 전민항쟁은 관념적 이구가 아니라, 민족민주투쟁의 힘이 근거해서 독재와 예측을 협박하는 실질적인 무기가 되어야 한다.

◇등록금 책정및 예산편성의 문제점

12월이 다가오면 기초조정설 관 계자들은 하나의 난관에 봉착한다. 그것은 각 행정부서가 요구하는 내년도 예산안과 등록금의 존를 80%라는 현실(91년 기준)에서 오는 등록금 책정및 예산 편성의 어려움이

되는 5월 말부터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등록금책정과 예산편성의 어려움은 학교 재정 수입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입각한, 전체 예산의 등록금의존율이 있다.

대학발전위한 재원확보 주력해야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등록금 의존률 높아

다. 학생들이 요구하는 복지사안, 각 부서(대학-복지가)에서 접수된 사업계획에 필요한 예산요구안을 합친면 1년 예산의 두배가 넘는 금액이 산출되고 가장 시급하다는 각 부서 사업계획의 절반정도는 '있었던 말'이 돼버린다.

이러한 예산책정 내용에서 등록금 증축, 동국학술연구문화센터(가칭) 건축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도 난제중의 하나이다.

등록금 책정및 예산편성의 문제점

유형고정자산이 9.5%, 시설보수, 각종 세급으로 지출되는 관리운영비가 8.9%로 인건비와 학생경비의 예산지출비율이 전체의 68.7%를 차지함으로써 교육재무자에 소요되는 예산은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등 극히 일부뿐이다. 이는 전국 '영세' 사립대학의 공통된 현상이지만, 실제 등록금이 대학을 운영하는 사립대학의 전반적인 위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예산책정 내용에서 등록금 증축, 동국학술연구문화센터(가칭) 건축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도 난제중의 하나이다.

동학로

22일 오후, 수험생 학부모로 보이는 한 어머니가 정각연에서 한 학생을 데리고 있다. 또 불상에서 자신의 함계를 발원하는 학부모도 눈에 띈다.

반성의 시간

92학년도 대학입학 학력고사 원 시접수 마감일인 21일부터 학원 앞에는 남다른 새벽시절은 밤늦게 한다.



지난 1년간 수고 많았습니다. 알찬 겨울방학이 되십시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학생복지지원회 관리업체 세일컨택트렌즈-안경

Table with 3 columns: 연수지역, 연수대상, 연수코스 및 일정, 연수비, 연수기간, 참가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참가신청 방법, 신청(접수)기간, 대행여행사, 주 관

성명서 제 17대 동국학원 이사장 선출에 즈음하여 제 112차 재단이사회에서 이사들의 서로 적어주기 선언에 이어 11월25일에 있었던 제 17대 동국학원 이사장 선임이 재단·종단 그리고 정권적 차원에서 서로의 이해에 기반한 재선임이라는 사실이 동국가족의 영원한 동국발전의 대한 이념의 의지표명이거나 장·단기 발전계획등의 제시도 없이 말살아함으로 이루어진대 대해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동국의 현실을 보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이제 동국재단은 기존의 운영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자기혁신을 이루어 내지 않으면 안될 위치에 있습니다.

사회보도

제2의 을사조약 전시접수국 지원협정 결사반대한다

◇ 현장보고- 제주도개발 특별법 반대운동의 현재

해녀가 '캐디'될 날 멀지 않았다

제주도개발 특별법을 둘러싸고 정부와 제주도민 간에 치열한 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특별법제정은 제주도를 정권과 재벌의 이익에 철저히 입각해 강행하려는 것으로 제주도민들의 생존권, 즉 자생력과 특수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제2의 4·3학살'이라 불리기도 있다.

'하와이행'이라는 최종개발 목표 표를 가지고 있는 특별법은 한 젊은 주민의 목숨을 잇아갔을 뿐 아니라 지난 26일엔 국회에서 민간자금이 단종 날치기 통과시킨 반민중적인 악법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제주도에 살고 자란 제주대생의 글을 실어 특별법이 얼마나 불합리한 법안인가를 직접 들어보기로 한다.

(편집자)



○어제(26일) 제주도개발 특별법이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됐다. 제주도는 특별법제의 도마위에 오르는 위기에 처해있고 도민들의 반대운동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날 서울 광기대회 후 평화행진 모습)

내가 자란 곳 그리고 앞으로 나의 생활 터전인 고향이다. 그동안 확실히 많은 변화를 했다는 걸 느낄 수 있는것은 이곳저곳에 도로가 깔리는 것을 통해 알게 된다.

특히 중산간 일대를 관통하는 도로를 현재 큰 2년차를 심한 대립과 혼란으로 거듭하고 있는 특별법 제정과 미묘하게도 연관이 있다는 얘기를 가끔씩 듣는다.

왜냐하면 특별법 제정 이후 주로 개발 대상지역이 되는 곳이 중산간지역이기 때문이다.

『뒤 법 내용을

외지 소유인 중산간지역 개발에 초점 의혹 커  
주객전도된 개발주체...특별법 저지투쟁 확산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손님들과 얘기를 나누다보면 특별법이 도민들에게 도울 성 소치 않다는 걸 느껴요.

제주시내에서 개인택시를 운전한다는 이 운전기사는 영입보증 만나는 손님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동안 특별법에 대한 이해 폭이 넓어졌다며 너털웃음을 보인다.

지난 11월26일 탐담메시지에서 있었던 제주도 개발 특별법 제정 반대 제3차 범도민 켈기대회까지 세차례의 특별법 제정반대시위는 도내 일간지에서도 성공적이었다는 평이다.

또 그 양을 관찰사 분신 이후에는 중앙일간지에서도 반대입장을 보이는 한민 도민들의 의지도 고조된 상태이다.

제3차 켈기대회가 열린 이날 만난 운전기사의 얘기는 대체로 "외지인 소유의 많은 중산간지역 개발에 초점을 둔 것 같다"면서 반대 면에 범조항은 도민주체가 아니라 집에 우리를 나타냈다.

사실 그간 논란을 벌여왔던 범조항 문제 가운데는 개발주체에 대한 시비가 더욱더 컸다. 지역개발을 위한 법제정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주민을 위한 법이라야 한다는 여론을 귀기울여 들어본다면, 현재 추진 중인 제주도 개발특별법안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과는 달리 실제 개발의 방향이나 내용에서는 제주도민을 위한다는 것을 전

혀 뒷받침 해주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공청회, 여론조사 등에서 나타났던 도민들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진행되고 있는 법제정 절차의 비민주성은 특별법의 목적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데, 정부와 민자당 그리고 도당국에 대한 불신의 벽을 높이고 있다는게 이곳 특별법 저지 범도민회 및 지난 11월22일 성명서를 발표한 도내 3개대학 교수, 31명의 제주문인협회원(11월10일 반대성명 발표)들의 의견이다.

남제주군 남원읍 의귀리에 사는 송현우(25세)씨는 "주민들을 도의시키는 법제정절차도 문제지만 주객이 전도되는 개발주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귀리의 경우로 전형적인 제주도의 중산간 마을이다. 이곳도 웬만하게 크다싶은 농장들은 전부와 지인 소유다. 얼마전 도내 일간지에 보도된 바에의하면 이곳에 이씨는 어느 농장을 잘 알려진 내외업체의 소유라고 한다.

도내에는 이런 땅이 절반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력이 없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개발은 요원하다는 송씨의 말이다.

한편 이곳 11월9일자 일간지에 특별법제정을 촉구하는 제주도 경제인연합회의 성명이 발표된 이후 도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관광산업과 농수산업의 연계가 지역경제발전은

다.

그리고 이곳 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에서도 이에 대해 "떡고물에 놓아나는 경제인연합회"라고 비난하고 있다. 학우들의 주장도 특별법이 독점재벌의 이익을 증폭시켜주기 위한 법이 특별법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정권에서 법제정을 강요하는 이유는 정치자금 모으기 위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범도민회를 비롯한 도내에서는 정기국회에 상정된 특별법안의 통과여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범도민회에서는 오는 11월30일을 전후로 제4차 범도민 켈기대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총협에서도 두차례의 시내가우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곳에서는 앞으로 있을 특별법의 본회의 통과여부에 관계없이 투쟁의 막판까지 왔다고 보고 있고, 최대한의 여력을 바쳐 투쟁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 학계 및 문인들의 반대성명 발표 및 도민들의 의지로 보아 가열한 투쟁이 기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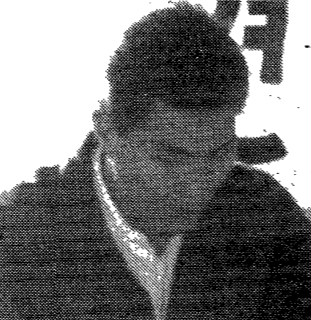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바람은 제주도의 개발은 아름다운 자연, 독특한 문화, 자연자원을 보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한 법의 제정이 도민들을 소외시켜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이다.

양 원 철  
(제주대 윤리교육과)

◇ 반미선봉대장 양동회 군을 만나

『수입개발 반대와 전시접수국 지원협정저지를 위한 반미선봉대』가 지난16일 상경, 민주당사 농성투쟁, 신라호텔 진격투쟁, 한미연합사 들



이제 반미선봉대장 양동회(목포대 총학생회장·법학4) 군을 만나 반미선봉대 구성배경과 앞으로의 투쟁방향을 들어 보았다.

▲반미선봉대 구성배경은... = 전시접수국지원협정 내용은 미국의 침략본질이 그대로 드러난 것인 반면 각 대안이 총학생회까지

이제 반미선봉대장 양동회(목포대 총학생회장·법학4) 군을 만나 반미선봉대 구성배경과 앞으로의 투쟁방향을 들어 보았다.

▲반미선봉대 구성배경은... = 전시접수국지원협정 내용은 미국의 침략본질이 그대로 드러난 것인 반면 각 대안이 총학생회까지

▲반미선봉대 구성배경은... = 전시접수국지원협정 내용은 미국의 침략본질이 그대로 드러난 것인 반면 각 대안이 총학생회까지

▲반미선봉대 구성배경은... = 전시접수국지원협정 내용은 미국의 침략본질이 그대로 드러난 것인 반면 각 대안이 총학생회까지

◇ 전국농민대회 취재기

○·어제(26일) 오후1시 장충당공원에서는 전국각지 농민의 농민·시민·학생 2만여명이 모여 '미국 수출수입지지와 쌀값보장·전량수매를 위한 전국농민대회'가 열렸다.

○·농민대회가 시작하기 전인 오전 11시 본교도서관에서는 학생 350여명이 모여 '미국의 경제침략저지와 자주농업쟁취를 위한 전국농학도, 청년학생 켈기대회'를 가졌다.

이 켈기대회가 끝난후 본교 정문에서 대회장으로 나가려던 학생들과 켈기대회를 대신하던 켈기대회 휘두른 곤봉과 방패에 현역학생이 머리를 맞아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대회장주변에는 해남농민회를 비롯 지방 농민단체에서 타고 올라온 20여대의 전세버스가 주차되어 있었다.

버스 유리창에는 '가자! 서울로', '해방농민에게 '전량수매' 등이 적힌 플래카드가 걸려 있어 지나가는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이 전노협 단방호의장은 연대



○·대회사를 통해 주름이 깊게 팬 전농 권의장은 "추수과업이후 우리 농민들이 다시 이자리에 모여 단결을 과시하게돼 기쁘다"며 "미국 수출수입지지와 쌀값보장·전량수매를 위한 전국농민대회"가 열렸다. 이이 전노협 단방호의장은 연대

"이제 아스팔트농사(?) 지으러 갑시다"

2만여명 참가, 대학로까지 평화행진

○·장충당공원 곳곳에는 대목(?)을 만난 표정마치가 즐비하게 서있었고 여독과 추위에 지친 농민들은 오뎅국물과 소주로 지친 몸을 달랐다.

포장마차 아주머니가 농민들에게 캔맥주를 권하자 한 농민아저씨는 "우리가 씨주가 최고지, 맥"하며 손을 내젓기도.

○·본대회는 오후2시경부터 시작되었고 전국농민회총연맹 권중대의장을 비롯 전국노동자협의회 단방호의장, 전대협위원장 이철상군장에게 제안사 20여명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한편 내빈소개가 진행될때 사회자는 "우리 민중의 자랑스런 전선일가(?)들을 소개합니다"라고 말해 농민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자서 "우리 이제 아스팔트 농사를 지으러 갑시다"라고 말해 사람들이 처음엔 어리둥절했지만 농민들이 가두시위를 비교해서 설명한 모양.

○·농민들은 갖가지 오색만장파 '추곡전량수매' '수입개발반대'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대회장을 빠져 나갔다.

또한 몇몇 농민들은 대나무와 뽕나무들의 각목을 들고 거리를 뚫으며 채운 전경들을 해집고 행진했다.

거리로 계속 쏟아져 나오는 늙은 농민, 아이를 업은 부녀자들은 한 걸같이 '미국 수출수입지지를 목이 터져라 외치면서 아스팔트 농사(?)를 짓고 있었다.

(박수로 기자)

**SAMSUNG Electronics**

이 품이 있는 도전의 세계 - 휴먼테크

**技動說!**

지동설은 지구가 태양의 힘에 의해 공전하고 있음을 알려 주었지만 정작 지구를 움직여온 힘은 바로 '기술의 힘'이었습니다.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식민지를 개척한 영국을 사람들은 '대영제국'이라 불렀고, 짧은 역사에도 풍부한 자원과 기술로 인간을 달에까지 보낸 미국을 사람들은 '세계의 리더'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패전의 고통을 딛고 어느덧 미국을 능가하는 기술을 지닌 일본을 흔히 '부서운 일본'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 -

대서양과 태평양을 건너는 '세계사의 주역' 자리를 이제 우리가 차지해야 할 때입니다.

'인간행복을 위한 첨단기술 - 휴먼테크'의 산실, 삼성전자는 바로 그 21세기의 주인공이 될 당신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의욕의 현장입니다.

휴먼테크  
삼성전자

특집

제2의 을사조약 전시접수국 지원협정 결사반대한다

장학제도·복지시설 완비... 학문연구 보장

◆김정매교수의 미국 E·W 대학 체류기

9월19일 아침8시, 시애틀 공항에 도착한 것은 김보 공학을 떠난지 10시간 후였다. 11시에 다시 소형 비행기를 갈아타고 스포케인(Spokane) 공항을 향했다. 1시간 후에 도착, 마중 나온 국제부장 로트슨 박사, 여직원 엔지, 하벨 박사(건설과) 등과 반갑게 초면인사를 했다.

누런 필발 사이를 20분쯤 달려 인구 7천명의 치니(C Cheney)에 있는 Eastern Washington 대학에 도착, 교관교수를 아파트에 짐을 내려놓았다. 점심식사를 하지는 않을 것임을 밝히고, 사무적인 일을 시작했다.

하벨교수의 안내로 시내로 들어갔다. 자동차로 2분쯤 달리니 차도 양편으로 단층건물들이 줄지어 선 거리가 나왔다. 이곳이 소위 상가 지역으로, 치니시의 유일한 교통정호등도 이 거리에 있다.

대학에 도착했다. 각과의 사무직원들은 모두 나이 든 여성이다. 영문과 비서도 60이 넘는 듯한 할머니로 20이 교수들의 연구와 강의에 필요한 일을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보조하며 우편을 배달하기도 한다.

EWU는 4학기제로, 가을학기(9월 23일-12월중순) 겨울학기(1월6일-3월말) 봄학기(4월초-6월중순) 여름학기(6월중순-8월중순)로 구분되어 있어, 일반학생은 석달의 여름방학을 즐긴다.

국제부 사무실로 가서 직원 엔지를 다시 만나, 시내의 유체국으로 갔다. 비행기 안에서 쓴 편지를 부치고 교수들의 연구와 강의에 필요한 일을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보조하며 우편을 배달하기도 한다.

대학에 도착했다. 각과의 사무직원들은 모두 나이 든 여성이다. 영문과 비서도 60이 넘는 듯한 할머니로 20이 교수들의 연구와 강의에 필요한 일을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보조하며 우편을 배달하기도 한다.

장)의 안내로 소개되어 많은 박수를 받았다. EWU에서 한국의 동국대는 잘 알려져 있고, 교관교수는 정중한 대접을 받는다.

가장 인상적인 순서는 장학금 회 사자와 그 장학금을 받은 신입생의 소개였다. 장학금위원회 회장이 단상에 올라 장학금 수여를 축하하는 가락을 소개했다. 나이든 부인과 딸이 단상 앞에 나와서, 다음, 학생의 이름, 출신고, 고등학교 학업 성적, 가족상황등의 내용과 함께 한 사람씩 소개하면 학생과 그의 부모형제가 테이블에서 일어났고, 학생은 홀 앞으로 나와 기증자와 포옹(여학생) 또는 악수(남학생)를

전공분야인 D.H. 로렌스의 이야기 부터 꺼냈다. 다음 동국대의 현황, 역사와 한국의 경제문제등으로 화제가 옮겨갔다. 민병철 총장이 보내는 불교 특유의 소형 범종을 전 달하니 매우 감사해하며 여러번 쳐보기도 했다.

10월×일 오후에는 시간약속을 했던대로 학부담당 부총장 조판 박사를 만났다. 이 대학에는 excellent 학생은 홀 앞으로 나와 기증자와 포옹(여학생) 또는 악수(남학생)를

EWU의 교육목표는 훌륭한 사회인의 양성으로, 대학원에서 석사과정까지만 있다. 그러나 장학제도를 통해 위생부주부의 훌륭한 고등학교 졸업생을 유치하고, 이들의 학구열을 충족, 진학시키기 위하여

- ... 이 들은 본교와 자매학교인 미국의 Eastern ...
○... Washington University(동위싱턴대학교)에 교환교 ...
○... 수로 가 있는 김정매(영문과)교수 체류일기의 ...
○... 일부본이다. 본교는 1980년에 E·W·U와 자매결연 ...
○... 을 맺은 이후 매년 교수와 학생을 상호 교환해 오 ...
○... 고 있다. (편지자) ...

일본대학의 영어교육은 미국의 여러 대학에서 진행되고 들었다. 한국 학생은 35명 정도였고, 약 15명이 여학생이고, 상당수가 영어교육원에서 영어실력을 타고 있다. 보통 6개월에서 1년이 지나면 대학 정규과정에 들어갈 실력을 쌓게 된다.

이상이 EWU에 도착 후 20여일간의 내 일기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정해진 지면상 여러 이야기는 할 수 없고, 앞으로 몇 가지만 더 언급하고자 한다.

내가 EWU에 도착한 이후 밤에 피우는 교수를 본 적이 없다. 일체의 건물내에서는 금연이 되어 있다. 두 시간 이상 계속된 교수회의에서는 물론 강의실, 교수실, 도서관, 학생식당, 학생관등에 담배연기가 없으니 천연의 무공해 공기를 어디서나 마실 수 있다. 또한 이 대학은 훌륭한 시설의 대규모 체육관을 갖고 있다. 학업을 주는 에어로빅반 등이 운영되고, 농구, 축구, 비치기 공놀이상, 수영장, 체력단련장, 사위장, 사우나장등이 갖추어져 있다.

EWU의 교육목표는 훌륭한 사회인의 양성으로, 대학원에서 석사과정까지만 있다. 그러나 장학제도를 통해 위생부주부의 훌륭한 고등학교 졸업생을 유치하고, 이들의 학구열을 충족, 진학시키기 위하여

내담없이 기초가 든든치 못함이 우리학계의 실상이다. 이는 일체의 모진 우민정략(愚民政略)에서 비롯됐지만, 더군다나 광복이후 마련도 없이 다부어 개교한 탓도 있고, 당국의 업포와 목인의 퇴물에도 필의 하나다. 실패의 석학들의 보따리장사를 나무러지만 쥐꼬리만한 보수로는 생활이 어려워 방편상 도리가 없었다. 혼란이 부추긴 인플레이션으로 말미암은 물가고르로 전입(專任)이면서도 몇대학을 걸일 출강하거나 전입 책임지도는 소홀하고, 연구가 부실한 해묵은 노트로 수강한 우리였으니 높직한 강의보다는 버려치기로 배운 우리 세대였다.

우리는 조선의 주자학을 힘써 공리공론을 나무라고 지행일치의 양명학은 아예 사문난처로 폄아 복학의 실사구시로 눈을 돌린 선진문이었다. 게다가 청대문화의 전입에 앞장섰던 문묘문묘해서 다산도 완당도 나왔지만 보수의 물림상은 개혁을 행장으로 몰아 못내는 우물 안의 개구리로 관정(觀井)의 이리서움을 저조하고 말았다. 평생 읽은 '가똥이요 달마다 修善家의 다말'인데 사가 治國 天下부터 넘보지니 덧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 담시는 웅골한 원장교육이 결타야 하는데도 무슨 사단인지 놀이가 앞서 말이다. 그래서 학도들은 의연하고 노레자랑이다 술타령이 우선해 한심하다. 거룩한 역사의 현장에서 고성방가리니 선현의 예도가 아니다. 작풍의 현장을 두루 살펴 그 열장에서 그 시대로 거슬러 되돌아가 광복의 열마 따라 그 시대의 그 작풍, 그 환경의 그 작풍부터 간고르간 말이다. 그곳이 선현의 유익임을 감안해서 진지한 토론을 전개하면 오죽 알차란 훈수다. 서원을 찾아 이기기를 따지고 사우(嗣守)를 찾아 호적한 古碑의 이름을 벗겨보자는 주문이다. 그런 뒤에야 영흥이 비로소 자저게 마련이다. 학술로 단합된 학문의 끈끈함은 현장담사다.

보람이요 현장교육의 반기다. 나는 산행을 즐겨 일찍이 교양학부장 시절에 프로젝트를 펼쳐 진한 성과를 거두었다. 여름방학을 이용해 실학산 등반과 낙산해수욕을 강행시작 해서인 동국인의 긍지를 얻어 주었다. 그리고 겨울방학에는 우리 사상의 참터인 울포로 인솔하여 삼천포 발우공양의 실료를 일깨

나의 학문 세계



이 변주

작품속 현장담사...학문의 끈끈함 추구

없는 파쟁(派爭)에 기승을 부려 열강의 간섭을 감수했기에 세상 누락 될까봐도 못된다. 따라서 洋의東西를 막론하고 힘이 바로 정의라는 기현상을 낳았다. 무력자는 눈치나 살피며 하루살이를 버릴때 밖에 없었다. 물론 내가 있어야 남이 있지만 선공후사(先公後私)는 몰라도 서로 더불어 즐기는 여인동락(與人同樂)은 모른체 자기만의 이익을 노려 독선적인 교육학자가 저지른 선다행(選多難)의 삶을 낳았는데, 이 현상을 오로지 교육의 부재만 탓하니 어이가 없다. 뒷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데, 정녕 명치가 걸린 중질이라 편지(扁鵲)이 무언하다.

우려 피아(彼我)의 마음의 벽을 털어 걸코러운 양심의 용어리를 뜯게 했었다. 또한 교양강좌에 명사를 초빙해서 전공의 실감을 불러 '학인 편'의 소극보다 아예 '해야 산다'의 적극으로 '길'을 여는 남산 코끼리의 자랄의 뿌리를 굳건히 안간힘을 다했는데, 요즘에는 대모를 꺼려 입두도 내지 못하는 판이니, 글세 교육부제의 편견을 들어 쓰자.

모든 건물내는 금연, 천연의 무공해 공기 만끽 부총장 5인이 출판·홍보등의 문제 전문적으로 담당

에 학교로 가서 교수조찬회에 참석하였다. 식사시간 30여분이 지난 8시부 터 부회장인 여교수의 사토로 회의가 시작되었다. 일년에 가을학기 시작 전 단 한번 있는 회의로 4백여명이 참석했다. 2시간에 걸친 회의내용이 매우 알찬 것이었다. 교수회회장은 기지와 의식을 섞이게 며 과거 일년간의 행정, 교육, 연구상의 업적, 앞으로 일년간의 계획, 난제들을 교내 출판물의 해당 쪽수까지 밝히며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야기했다. 상공회의소 소장, 이사장등의 말이 있을 후, 새학년도에 은 외국학자의 교수들이 소개되었다. 한국, 소련, 가나(아프리카), 중국, 유고등 여러나라에서 온 방문 및 교환교수가 소개되었다. 나는 이중 엘리리석에 앉았더니 동국대에 첫 교환교수로 왔던 벨파사(행정과 과장, 국제교육위원회 회

합으로써 서로 감사와 격려를 표시했다. 학부학생의 평균연령은 27세로, 상당수의 학생들이 사회에서 이런저런 경험을 쌓은 후에 공부로 다시 시작한다. 10월×일 아침 트리먼트 총장과의 면담이 있어 7시간에 짐을 나섰 다. 동대와의 자매결연 문제를 총괄하는 한미문제연구소 소장인 신석환 박사(지리학)와 벨 파사가 합석했다. 총장은 이 대학이 평교수로 은지 6,7천 가량밖에 안되었으니, 능력이 인정되어 총장으로 추대된 사람이다. 경영학교수로 와서 적은 보직을 받았는데, 뛰어난 행정력이 인정되어 부총장으로 곧 임명되었고, 전대로 총장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조건으로 일을 시작했음에도 그의 탁월한 능력을 보고 이사회는 그에게 총장직을 맡도록 간청했다. 그는 나를 보자, 곧 나의

있는데, 이들 모두는(강의는 하지 않음) 전문행정이다. 며칠전에 만났던 인사사회의대 커리칼장도 마찬가지였다. 과거에는 스페인인문학과로 박사학위까지 소지했으니 전문행정으로 나서면서 강의와 연구는 그만 두었다. 이들은 EWU내의 행정인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광포를 하여, 용모한 수심명의 지휘자 가운데서 선별된 인물들이다. 호프만 부총장은 바로 얼마 전에 부임하여 아직 적응 못한 짐들이 집 무실에 놓여있었다. 그의 방에 걸려 7천여명의 재학생중 4백50여명이 외국학생이라고 한다. 그중 약 2백50명이 일본학생으로, 대부분은 자매결연된 일본 아세아대학의 학생들로 E.W.U에서 일년간 영어공부를 집중적으로 하기위해 온 학생들이다. 이들이 취득한 학점은 귀국하던 인정되는데, 이런 식의

'우등생 강좌(Honors Class)'를 각과에서 운영, 우등생만이 이 강좌에 등록할 수 있고, 그 강좌의 점과 특색은 다른 강좌의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여자교수가 전체 교수의 1/4정도(100여명) 차지하고, 메달 여교수회기가 있다. 전선과 연구진작을 위한 것으로 저녁식사 후에 여교수의 강연을 듣거나 공동토론을 한다. 내가 초대되어 참석했던 회의는 호사나 풍니부집 상황에서 열렸 다. 생물학과와 여교수가 헬렌 로산의 80년 폭발이전과 이후의 모습을 담은 슬라이드를 보이며 흥미로운 설명을 했다. 몇가지 질문을 하여 '공감증을 즐겼는데, 알고보니 이 교수는 EWU의 '훌륭한 강의자'(best teacher) 상을 받은 명강의 학구와 교수였다. 미국 본토인(Native American) 미국 인디언을 이렇게 부른다) 션

다. Afro-American선타들 여러 연구소 중에서 특히 여성학 연구소의 활약이 돋보였다. 신학자 첫 모임에서 자녀를 둔 독신녀 학생 5명에게 500달러 장학금을 수여했다. 또 정규 여성학 강의의 계획만 만 아니라 매우 두 개의 강연, 영화, 슬라이드 등을 계획,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내가 참석한 것 중에는 '미국여성의 위상'을 다룬 아마추어 영화, '캘리포니아의 집대들의 실태', '미국여성의 지도력', '유교의 여성'이란 제하의 강연이 있었다. 필자도 다음 학기에 '한국의 유교사회의 여성'이란 제하의 강연을 하게 되어 있다. 이 대학에서는 여성학을 전공이나 부전공으로 택할 수 있다. '문학상의 여자'와 '남자', '역사상의 여자'와 '남자', '미국역사의 여자'와 '남자', '심리학의 여자'와 '남자' 등 1 학점 짜리의 10여 가지 강좌가 주말의 하루동안(오전 8시-오후 5시)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이외에

도 5학점 짜리의 '여성학의 제 문제', '여성, 문화 그리고 사회변천', '여성과 예술', '오늘날의 여성문학' 등의 다양한 강좌는 자동차로 30여 분 거리에 있는 스포케인 시내에 위치한 EWU강의 센터에서 저녁 7시(간도 7시30분)에 진행되어 다양한 연령층의 직업인이 많이 수강한다. 지니 캠퍼스에서는 강의가 아침 8시에 시작되며, 7시30분이면 모든 학과의 직원과 학과장이 출근하고, 서경도 7시30분에 문을 연다. 이들의 부지런함과 투철한 직업인, 친절함이 매우 인상적이다. 국제부의 직원 엔지는 대학생 발표와 공동 학생 아들을 둔 40대 중년의 독신녀인데, 할 일이 있으면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일을 처리한다. 또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지붕공사를 할 때 일꾼들은 아침 6시 반에 직업을 시작했다. 무공해의 공기, 물, 자연환경처럼 교수 학생 주민이 순박하고 친절하여 외국학생이 처음 공부할 시작하

당신이 그런식으로 행동하는 이유!
행동하는 이유!
신국판 344면 / 책값 5,000원

개강 12월 2일(월)
등록마감 11월 30일
4개월 일반강좌
방학특강(12월 16일~2월 말)
1월~2월 2개월 속성반
프랑스어
이태리어
스페인어

무료 TOEFL 강좌 실시!
당신도 당신이 원하는 미국·유럽의 일류사립대학에 들어가실 수 있다!
이제부터 당신의 생애를 하나의 기적으로 당신의 기운을 명문으로 바꾸십시오.

조선민족 혁명당과 통일전선
고려대 교수 강민길 저
남북동일후 한국의 현대사는 어떻게 이어져야 할 것인가?
한국역사학계의 종진인 저자가 민족통일을 기원하면서 '본민족 특사문'을 수립하고 그 실종 작업으로써 10여년간의 자료수집 끝에 발간한 문제의 연구서.

에이젠스제인 감독노트
나는 이렇게 영화를 만들었다
거침없는 정신과 열정으로 영화를 위해 살다간 러시아의 천재감독 에이젠스제인의 영화론, 영화작품.

국내최대정보처리전문교육기관
컴퓨터
전신원 수강생 모집
과정 기간 교육 내용
7개월 전산개론, FORTRAN-77(WATFOR 포함) ST-COBOL(RM포함), ASSEMBLY 응용과제기(WP, LOTUS, D-BASE), C언어 실무 COBOL(시스템 분석, 설계)

에찬사
서울 서대문구 북이문동 137-9 201호
Tel. 313-1753-4 Fax. 313-1754
OCi(졸업생과 재학생이 추천하는 실무교육전문학원)
동양전자전문학원

여론조사

제2의 을사조약 전시접수국 지원협정 결사반대한다

91 동대신문 신문평가 설문조사

학내 구성원의 요구와 숨결이 묻어나는 동대신문이 되어

동대신문이 91년을 마감하면서 교수, 학생, 대학원생, 직원 등 대상으로 신문평가를 실시했다.

사건으로의 표현을 선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편집에 대해서도 학생의 글이 많이 실려야 한다(60.1%)가 가장 많이 응답했다.

필요성이 있었고, 지면구분이 된다(27%), 별차 없었다(22.1%), 안된다(13.4%), 무응답(4%)순으로 나타났다.

한 내용을 담자(23.3%), 지면만 늘었다는 것만 다를까(22.1%)로 대답해 본래 설정했던 '독자들의 신문'을 만들려는 시도는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많은 담았고, 사실처럼 편집을 제시하는 글에 외부간섭이 없는 것(31.9%), 학교당국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10.9%), 기타(6.2%)로 나타났다.

지원장치의 미비(26.4%), 기자들의 역량(12.3%), 편집자 윤리(10.7%), 무응답(6.7%)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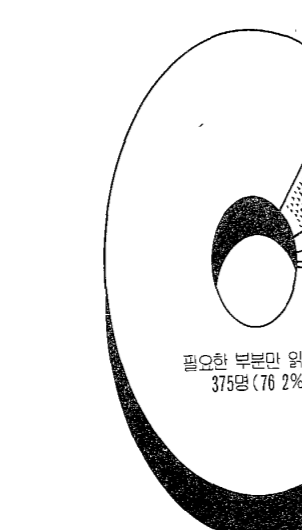
동대신문의 위상으로는 학교 소식지(43.2%), 대중지(37.8%), 선전선동지(9.1%), 기타(7.7%)로 나타나 아직까지 동대신문의 역할이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원생들은 학내 모든 학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동대신문을 원했고, 사회·기회면에서 객관적 시각을 요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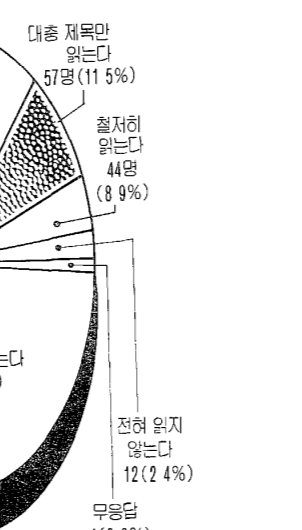
동대신문의 기초지식

먼저 동대신문의 전체적인 지도를 보면 △동국대학교를 대표하는 언론매체이다(91.8%) △매주 1회 화요일 제작, 수요일자로 배포된다(71.1%) △신문제작은 전적으로 학생기자에 의해 이루어진다(40.2%)로 신문제각에 있어서 최종 O.K권등 편집자들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는 사실을 많은 이들이 잘모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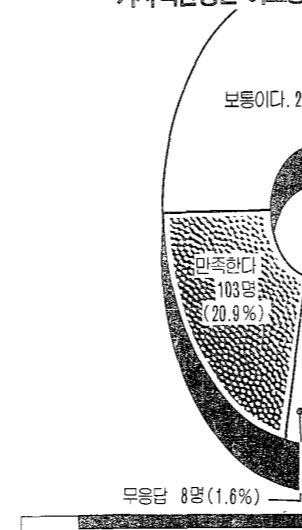
동대신문을 얼마나 자세히 읽습니까?



동대신문의 학내정보수집의 정도와 기사작성은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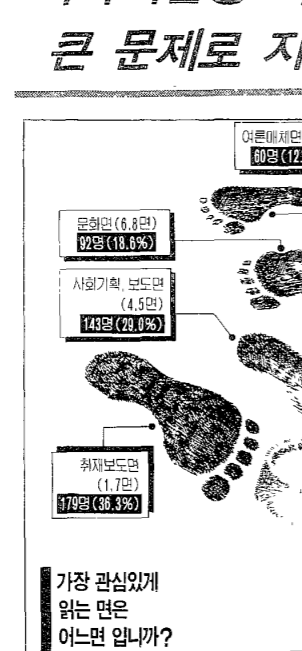
동대신문이 대학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동대신문의 내용

동대신문을 얼마나 자세히 읽느냐는 물음에 필요한 부분만 읽는다(76.2%), 대중 제목만 읽는다(11.5%), 철저히 읽는다(8.9%), 전혀 읽지 않는다(2.4%)고 답했고 대중 읽거나 전혀 읽지 않는 이유는 그다지 관심을 끌만한 게 없다(18.6%), 신문을 제대로 받아볼 수 없다(5.5%), 내용이 어려워 읽기 힘들다(2.8%), 기타(5%)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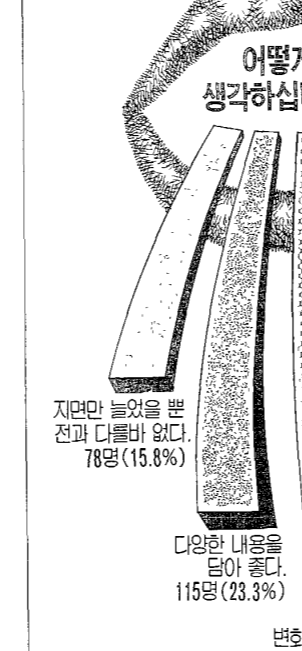
기사작성 미흡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



올해들어(특히 1학기때) 여론매체면 강화, 격주12면발행을 시도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장치 마련 절실



동대신문의 내용

동대신문을 얼마나 자세히 읽느냐는 물음에 필요한 부분만 읽는다(76.2%), 대중 제목만 읽는다(11.5%), 철저히 읽는다(8.9%), 전혀 읽지 않는다(2.4%)고 답했고 대중 읽거나 전혀 읽지 않는 이유는 그다지 관심을 끌만한 게 없다(18.6%), 신문을 제대로 받아볼 수 없다(5.5%), 내용이 어려워 읽기 힘들다(2.8%), 기타(5%)로 나타났다.

내용별 지면 구분

동대신문은 취재, 사회, 여론, 경제, 문화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지면별 내용구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답한 사람이 33.1%나 돼 지면의 특수성과 선정성을 좀더 담보해야

다(24.7%), 독자들의 부고에만 치우쳐 편집이 없다(16.4%), 사실의 주제와 시각에 문제가 있다(15.6%), 기타(17.5%)의 순으로 나타났다.

요즘들어 학원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타대학에서는 신문의 제작중지사태가 잇따르고 있어 편집자들에 대한 질책이 높아져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되었다.

지금까지 나타난 전반적인 질문의 총화로서 동대신문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독자들의 무관심(43.6%)을 가장 많이 얘기했으며, 제도적

났고 특히 교수, 직원들의 63.8%가 학교소식지로서의 동대신문을 더욱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동대신문에 바라는 말에는 많은 질타와 격려를 함께 보내주었는데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문화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다.

이렇게 학내 각층의 고른 의견을 들은 결과 많은 사람들이 동대신문에 애정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설문을 마치며

이렇게 학내 각층의 고른 의견을 들은 결과 많은 사람들이 동대신문에 애정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기점검과 좀 더 나은 동대신문을 위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그동안 부족했던 점들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제도의 장치들을 마련함과 아울러 신문에 대한 위상 설정을 새롭게 하고 내부쇄신을 통해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독자들이 제안한 푸고 단 강화와 신설, 다양한 정보수집, 심도있는 생활에 꼭 필요한 문제들을 다루는 것과 동시에 더욱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랄 것이다.

다양한 문화정보, 심도있는 기사를 원했고 학생부교원의

서울고시화원

Advertisement for Seoul University of Education (서울고시화원) featuring TOEFL preparation and various courses.

컴퓨터

Advertisement for a computer training center (컴퓨터) offering various software and hardware courses.

빛과 소금의 소리 CBS

Advertisement for CBS (빛과 소금의 소리) featuring computer OA training and other services.

모 컴퓨터 연수생

Advertisement for computer training (모 컴퓨터 연수생) with details on course content and fees.

한국비즈니스컨설팅(주)

Advertisement for KBC (한국비즈니스컨설팅) computer education center.

여론매체

열린글터

본사 여론매체는 동대신문의 모든 독자들을 위한 공간을 항상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학교생활 또는 일상생활속에서 느끼는 것들을 2백자원고지 3~5매 정도로 부담없이 적어서 가져 오십시오. 글을 못쓰신다구요? 그럼 만화나 사진도 좋습니다.

농민해방 민족해방 합성으로 메이리친 우리의 열망

학생-농민 연대로 미국의 농업해체정책 막아내자

농업은 한 국가와 민족의 생명이다. 우리나라 농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의 한반도 강점 이후 시작된 세계 '분식, 육식 문화' 정책에 의해 남한 사회의 농업은 작물별로 하나하나 사라지기 시작했다. 여기에 남한의 역대 정권은 공업우선정책으로 농업에 대한 관심과 함께 농업 해체를 은연중에 조장했다. 남한 농업의 마지막 해체 단계인 쌀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으며 그 시기 또한 남한권력 재편기 시기와 맞물려 현정권의 농업해체는 기정사실화 하면서 기만적인 선거정책으로 '농어촌 종합발전대책'이라는 허구적 대안을 내놓고 있다.

'민주대연합'의 기치아래 진민중의 총단결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여 농민이 해방된 세상, 민족이 해방된 세상, 자주·민주·통일된 세상 만들기 위해 총단결해야 할 때에 26일 농민대회와 의회가 더욱 있다. 특히 민주대연합의 초석이 되고 미국의 경제침략인 쌀수입을 막아내어 92-93년 승리적 전망을 안아올 수 있는 초석과 관련과 기이 자주·민주·통일된 세상을 향한 전민중의 뜻이 결집하는 장이 된 것이다. 류기주 (농과대 농학과)

동국관 식당도 행사유치 필요 먹는장소에서 쉬는공간으로

올해 보리수(옛 다량관 휴게실)에서 각 학생회 및 계단체가 벌인 행사가 약 50건이 넘는다. 이 숫자는 일주일만 한 번은 행사가 있다는 예기에 다양한 학생식당도 학생들의 '행사공간'으로 애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다양한 교직원 휴게실과 동국관 식당도 학생들이 많이 이용한다. 그런데 지난 9월에 학교에서 동국관 식당을 운영하고자 하는 동국관 식당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줄어 들고 대부분 보리수를 이용하려 하기 때문에 매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힘들어 하고 또한 행사후 뒷정리를 깨끗이 하지 않아 다음날 보리수를 찾는 학생들에게 불쾌감을 주게 된다. 특히 졸업생생존회나 각 과동문회가 많이 불리는 요즘은 일주일당 5일동안 행사를 치러낸 적도 있다. 이에 학생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해에 다량관 학생식당에 행사를 하는데 편리하도록 키펀을 설치하고 보리수의 행사를 식당쪽으로 유도하고 있다.

초대시

박영길 (법과대 법학과 교수) 가을산

가을술에 황혼이 드러누고 인수봉 마루턱을 오르는 산그림자 이물살에 묻혀가는 계곡을 타고 반생님은 세월이 가랑잎되어 풀출려 님는다.

꺼져서 쌓이는 과거사가 혈흔(血痕)으로 살아나 서러운 산그림자를 태우고 백운대(白雲臺)를 리는 매운 바람이 갈날로 서서 가을산 깊은밤을 베어낸다.

남아가는 가랑잎이야 분별하고 새싹이 오겠지만 가을산 깊은밤을 헤아리며 지명(知命)을 걸어가서 발목이 휘청인다.

우리는 배워 당부하고야 한다. 이진선(학생복지위원회 총지배인)

과 홍보 대결관 수험생 입시상담 당락결정보다는 따뜻한 위로로

매년 이맘때만 되면 체육관을 휘시로 한 학원관 앞에서는 진풍경이 벌어진다.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에 걸쳐 학원관 앞에서는, 각과가 주체가 되어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는 입시상담이 있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나와 예비 후배들에게 커피도 끓여 주며, 여러 정비를 동원한 과홍보의 열의가 대단한 자리였다. 그러나 그러한 열의와 성의와는 달리, 그동안 매년 이시기만 되면 진행되는 학생주체의 입시상담에 있어, 근본적인 풍토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낳은 자리였다. 우선 우리는 과거에 겪었던 수험생의 입장에 들어가 봐야 할 것이다. 적어도 수험생에

가을산

가을술에 황혼이 드러누고 인수봉 마루턱을 오르는 산그림자 이물살에 묻혀가는 계곡을 타고 반생님은 세월이 가랑잎되어 풀출려 님는다.

꺼져서 쌓이는 과거사가 혈흔(血痕)으로 살아나 서러운 산그림자를 태우고 백운대(白雲臺)를 리는 매운 바람이 갈날로 서서 가을산 깊은밤을 베어낸다.

남아가는 가랑잎이야 분별하고 새싹이 오겠지만 가을산 깊은밤을 헤아리며 지명(知命)을 걸어가서 발목이 휘청인다.

우리는 배워 당부하고야 한다. 이진선(학생복지위원회 총지배인)

편지하나

지금 밖에는 시들어진 낙엽이 초겨울의 날씨속에 하나둘씩 지고 있다. 그것을 무심코 쓸어내는 미화원 아저씨들의 마음은 어떠한가. 1년을 마무리하며 내년의 삶에 대한 희망도 있었지만 연말연시에 다가오는 갖가지 마음의 병이 있는지도 모른다. 어느덧 내가 이곳 학생회관에 발을 디디지도 1년반이 되었다. 그곳에 온 것 같은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처음 3개월정도가 매우 힘들었던 것 같다. 조용한 동국관 건물에서 이곳에 왔으니 너무 당연한지도 모르겠지만, 학생들은 젊은이들의 우렁차고 활기찬음성의 표현이라고 말할수도 있겠지만 때와 장소를 조금만 생각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여겨져서 기타소리와 함께 노래를 크게 들려올때 처음엔 "젊음의 용기가 저런 것이구나. 역시, 학생들이 젊음을 발산하는 것은 멋있고"라고 혼자 감탄도 해 보았지만 그것도 몇 달동안 듣고 있자니 약간은 짜

22의 을사조약 전시접수국 지원협정 결사반대한다

◇학생들에게 띄우는 수위아저씨의 당부

중이 남에도 있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도 애기와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주고 싶어도 참고 지낸 것이 어느덧 1년 반... 정말 짧고도 긴 세월이었다. 술에 만취한채 30분 넘게 절문을 발로 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이상에 대한 고민을 나에게 찾아와 논의하려는 학생들의 순수함이 있어 좋았다. 술에 취해서 잠을 안재

내일의 영광 향한 힘찬 발걸음을

술에 취해 철문 두드리는 행위 자제했으면

취했다고 참문을 깨고 뛰어가 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신입생 환영회를 한다고 신고주(주?)를 가져와 잔취보라고 했던 미담도 있다. 전날의 잘못을 알고 찾아와 사과를 할때는 난 더욱더 그 학생을 달래곤 한다. 어느날 술에 취한 한 학생이 술을 잔뜩 사가지고 찾아와 아저씨와 얘기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 학생의 의견을 들어주고 싶었지만 간신히 달래어 보낸 일도 있다. 처벌이 없이 처벌을 빌려간 학생, 자기동아리방 보수장사를 마치고 고사를 지낸다고 초대해주어 진심으로

◇에베레스트에서 전해온 글

다. 우리 시간이 되면 내려가서 먹고 올라오기만 하면됩니다. 이를 역시 배이스 캠프까지 같이 가서 우리팀이 다시 카트만 두에 올 때까지 기다리다. 이를 역시 두달 정도 일하고 받는 돈은 10만원 내외입니다. 이 곳 고등인들은 우리 대학기를 하인이 주인대하듯이 해 주는데 이는 영국인들이 이곳을 지배하면서(한때 영국의 식민지 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편지들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행정학과와 정치학과를 접점한 뒤 내파의 수도인 카트만두를 헬기로 50분 정도 온 마을에서 3시간 정도 왔는데 이 마을엔 전기가 없습니다. 헬기에서 내려다 보니 전기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마을이 상당히 있는듯 했습니다.

네팔 짐꾼들한테 배운 삶의 끈기

하얀산배경 '환상여행' 실제와 거리 멀어

길을 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전과 20세기를 같이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을수가 없었습니다. 아시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산에 가서는 '셀프'라고 불리는 이들이 우리가 등반하는데 거의 모든 것을 도와 줍니다. 길을 내기도하고 켈프간에 서로 짐을 옮겨 주기도 하고 대신 그들은 배이스 캠프까지는 짐을 지지않고, 그들이 사용할 장비도 우리에게서 빌려다 창비비와 인건비 모두 합쳐봤자 두달에 동안에 15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이미이마하게 큰 하얀산을 배경으로 야크와 짐꾼

슈퍼 프러스펜의 특징
●Tip 구조가 전혀 다른 금속팁으로 촉이 물러지지 않습니다.
●細字用 프러스펜으로 글씨를 가늘고 부드럽게 쓸수 있습니다.
●필기거리가 1km 이상으로 길어졌습니다.
●경쾌하면서도 품위가 있는 고전적 디자인입니다.
[Image of Super Plus Pen]

모나미의 역사는 곧 한국문구의 역사입니다.
匠人精神
작고 단순하게 보이는 한 자루의 필기구에도 정성이 깃든 장인정신이 있습니다.
전통의 모나미가 만든 슈퍼 프러스펜 - 30년 전통이 낳은 필기구의 걸작입니다.
문구산업의 불모지였던 이 땅에 최초로 볼펜을 만들어 필기구의 일대혁명을 일으켰던 주식회사 모나미 -
지속적인 세계수준의 기술혁신으로 질적·양적 성장을 꾸준히 해 온 모나미는 드디어 고성볼펜과 프러스펜의 장점만을 살린 슈퍼프러스펜을 탄생시켰습니다.
모양은 볼펜이지만 필기감은 프러스펜인 슈퍼프러스펜! 전통의 모나미가 탄생시킨 새로운 필기구입니다.
모양은 볼펜 필기감은 프러스펜!
슈퍼프러스펜
(총·적·촉·필기거리 3000원)
SUPERPLUS
모나미의 단독생산 필기구입니다.
[Image of Super Plus Pen]

문예이론

제2의 을사조약 전시접수국 지원협정 결사반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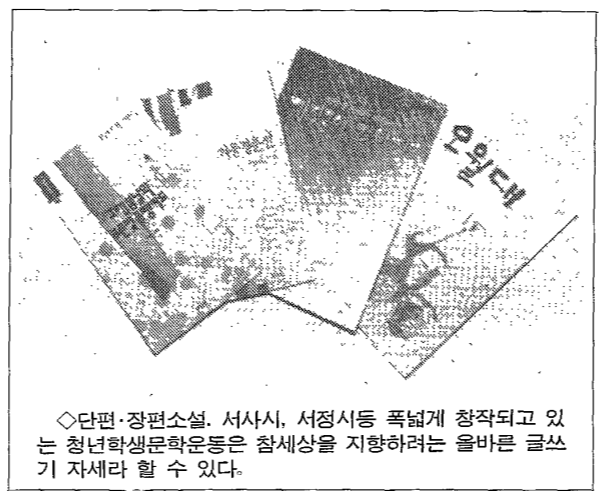
"폭넓고 다양한 장르로 민족문학을 살찌운다"

◇ '오월대'를 통해본 청년학생 문학운동

지난 13.14일 전남대 시위도 중 경찰의 탄압이식 시위 진압에 격분하여 전남대의 남학생들이 광주 중흥동 파출소를 응징한 사건으로 광주 북부시에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되어 일대 검거령이 내려졌다는 것은 이미 언론을 통해 알고 있을 것이다. 나는 그 사건에 관계한 것으로 되어 연행되었다. 조사 받는 도중 재미있는 소식을 접했다.

지난 13.14일 전남대 시위도 중 경찰의 탄압이식 시위 진압에 격분하여 전남대의 남학생들이 광주 중흥동 파출소를 응징한 사건으로 광주 북부시에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되어 일대 검거령이 내려졌다는 것은 이미 언론을 통해 알고 있을 것이다. 나는 그 사건에 관계한 것으로 되어 연행되었다. 조사 받는 도중 재미있는 소식을 접했다.

지난 13.14일 전남대 시위도 중 경찰의 탄압이식 시위 진압에 격분하여 전남대의 남학생들이 광주 중흥동 파출소를 응징한 사건으로 광주 북부시에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되어 일대 검거령이 내려졌다는 것은 이미 언론을 통해 알고 있을 것이다. 나는 그 사건에 관계한 것으로 되어 연행되었다. 조사 받는 도중 재미있는 소식을 접했다.



◇ 단편·장편소설, 서사시, 서정시 등 폭넓게 창작되고 있는 청년학생문학운동은 참세상을 지향하려는 올바른 글쓰기 자세라 할 수 있다.

민족문학은 끊임없이 발전해왔다. 나는 이 가을에 쏟아진 4권의 작품집에 열마진까지 민족문학의 위기를 낮추고 뜨겁게 만드는 제과라 말하고 싶다.

이강훈 형은 이미 부산대에서 알아주는 시인이었기에 알 수 있었다. 모두가 자신의 학교에서 조국의 자유민주 통일을 위해 온몸을 다 바쳐 투쟁하는 학생들이었다.

김영수 시인이 말했던 자주적 문예운동이 생각난다. 그 발단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

에서 만났었다. 이강훈 형은 이미 부산대에서 알아주는 시인이었기에 알 수 있었다. 모두가 자신의 학교에서 조국의 자유민주 통일을 위해 온몸을 다 바쳐 투쟁하는 학생들이었다.

김영수 시인이 말했던 자주적 문예운동이 생각난다. 그 발단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

에서 만났었다. 이강훈 형은 이미 부산대에서 알아주는 시인이었기에 알 수 있었다. 모두가 자신의 학교에서 조국의 자유민주 통일을 위해 온몸을 다 바쳐 투쟁하는 학생들이었다.

김영수 시인이 말했던 자주적 문예운동이 생각난다. 그 발단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

에서 만났었다. 이강훈 형은 이미 부산대에서 알아주는 시인이었기에 알 수 있었다. 모두가 자신의 학교에서 조국의 자유민주 통일을 위해 온몸을 다 바쳐 투쟁하는 학생들이었다.

김영수 시인이 말했던 자주적 문예운동이 생각난다. 그 발단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

에서 만났었다. 이강훈 형은 이미 부산대에서 알아주는 시인이었기에 알 수 있었다. 모두가 자신의 학교에서 조국의 자유민주 통일을 위해 온몸을 다 바쳐 투쟁하는 학생들이었다.

김영수 시인이 말했던 자주적 문예운동이 생각난다. 그 발단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

에서 만났었다. 이강훈 형은 이미 부산대에서 알아주는 시인이었기에 알 수 있었다. 모두가 자신의 학교에서 조국의 자유민주 통일을 위해 온몸을 다 바쳐 투쟁하는 학생들이었다.

김영수 시인이 말했던 자주적 문예운동이 생각난다. 그 발단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

에서 만났었다. 이강훈 형은 이미 부산대에서 알아주는 시인이었기에 알 수 있었다. 모두가 자신의 학교에서 조국의 자유민주 통일을 위해 온몸을 다 바쳐 투쟁하는 학생들이었다.

김영수 시인이 말했던 자주적 문예운동이 생각난다. 그 발단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

에서 만났었다. 이강훈 형은 이미 부산대에서 알아주는 시인이었기에 알 수 있었다. 모두가 자신의 학교에서 조국의 자유민주 통일을 위해 온몸을 다 바쳐 투쟁하는 학생들이었다.

김영수 시인이 말했던 자주적 문예운동이 생각난다. 그 발단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

에서 만났었다. 이강훈 형은 이미 부산대에서 알아주는 시인이었기에 알 수 있었다. 모두가 자신의 학교에서 조국의 자유민주 통일을 위해 온몸을 다 바쳐 투쟁하는 학생들이었다.

김영수 시인이 말했던 자주적 문예운동이 생각난다. 그 발단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

에서 만났었다. 이강훈 형은 이미 부산대에서 알아주는 시인이었기에 알 수 있었다. 모두가 자신의 학교에서 조국의 자유민주 통일을 위해 온몸을 다 바쳐 투쟁하는 학생들이었다.

김영수 시인이 말했던 자주적 문예운동이 생각난다. 그 발단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

에서 만났었다. 이강훈 형은 이미 부산대에서 알아주는 시인이었기에 알 수 있었다. 모두가 자신의 학교에서 조국의 자유민주 통일을 위해 온몸을 다 바쳐 투쟁하는 학생들이었다.

김영수 시인이 말했던 자주적 문예운동이 생각난다. 그 발단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

에서 만났었다. 이강훈 형은 이미 부산대에서 알아주는 시인이었기에 알 수 있었다. 모두가 자신의 학교에서 조국의 자유민주 통일을 위해 온몸을 다 바쳐 투쟁하는 학생들이었다.

김영수 시인이 말했던 자주적 문예운동이 생각난다. 그 발단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

에서 만났었다. 이강훈 형은 이미 부산대에서 알아주는 시인이었기에 알 수 있었다. 모두가 자신의 학교에서 조국의 자유민주 통일을 위해 온몸을 다 바쳐 투쟁하는 학생들이었다.

김영수 시인이 말했던 자주적 문예운동이 생각난다. 그 발단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

에서 만났었다. 이강훈 형은 이미 부산대에서 알아주는 시인이었기에 알 수 있었다. 모두가 자신의 학교에서 조국의 자유민주 통일을 위해 온몸을 다 바쳐 투쟁하는 학생들이었다.

김영수 시인이 말했던 자주적 문예운동이 생각난다. 그 발단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

에서 만났었다. 이강훈 형은 이미 부산대에서 알아주는 시인이었기에 알 수 있었다. 모두가 자신의 학교에서 조국의 자유민주 통일을 위해 온몸을 다 바쳐 투쟁하는 학생들이었다.

김영수 시인이 말했던 자주적 문예운동이 생각난다. 그 발단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

에서 만났었다. 이강훈 형은 이미 부산대에서 알아주는 시인이었기에 알 수 있었다. 모두가 자신의 학교에서 조국의 자유민주 통일을 위해 온몸을 다 바쳐 투쟁하는 학생들이었다.

김영수 시인이 말했던 자주적 문예운동이 생각난다. 그 발단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

에서 만났었다. 이강훈 형은 이미 부산대에서 알아주는 시인이었기에 알 수 있었다. 모두가 자신의 학교에서 조국의 자유민주 통일을 위해 온몸을 다 바쳐 투쟁하는 학생들이었다.

김영수 시인이 말했던 자주적 문예운동이 생각난다. 그 발단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

에서 만났었다. 이강훈 형은 이미 부산대에서 알아주는 시인이었기에 알 수 있었다. 모두가 자신의 학교에서 조국의 자유민주 통일을 위해 온몸을 다 바쳐 투쟁하는 학생들이었다.

김영수 시인이 말했던 자주적 문예운동이 생각난다. 그 발단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

수업경시풍조

조성구

(공과대 산업공학과교수)



몇 해 전에 평소 친분이 있는 과학기술원의 모교수가 우리나라 대학들은 선진국의 대학들에 비해 수업일수가 너무 적다고 걱정하던 글이 어느 일간지에 실렸던 일이 있다. 한 학기당 16주의 법정수업일수는 너무 짧아서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이 지나치게 긴 방학을 향유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과학기술의 축적이야말로 한 나라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일기에 모든 나라들이 과학기술인재의 양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때에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에게 너무 공부를 시키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정말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수업일수의 길고 짧음을 논하기에 앞서 우리 대학인들이 그나마 정해진 수업일수를 얼마나 충실하게 지키고 있느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등록금이 비싸다고 얘기하면서 그 댓가로 얻은 수업받을 권리를 스스로 일부나마 포기하는 것은 경제적 논리에도 부합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행사들은 가급적 수업시간을 피해서 치루어 주어야 한다.

수업이 경시되는 경향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예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그중 꼭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이 4학년 수업 문제다. 4학년 2학기가 되면 개학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한두 명씩 취직하는 학생이 나오게 되고, 11월 초쯤 되어 대기업 공채가 시작될 무렵이면 사실상 수업이 불가능해지는 것이 현실이다. 취업준비로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열의도 떨어지거나 취업이 확정되면 대개 곧바로 입사하여 연수를 받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행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며 무엇때문에 기업들은 학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공채를 하고 연수를 시키는가? 기업들이 학교수업의 중요도를 그토록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인가? 이 모두 우리가 한 번쯤은 곰곰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임에 틀림없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고급인력의 부족을 느끼게 되면서 대기업들이 서로 먼저 대학졸업예정자들을 뽑아가려고 다투던 시절 생겨난 관행이 대학의 순수성이 얼마나 상실을 입고 있는가 고려되지 않은 채 지속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우리 대학인들이 이의 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대학의 학기수가 8학기가 아니라 실제로 7.5학기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이 그대로 방치될 때 그 일차적 책임이 우리 대학인에게 돌아온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말을 찾아 ◇시리즈를 마감하며

근래 우리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반면 외래어, 비속어의 남용으로 우리말의 바른 사용과 고유어의 발굴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해 요구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지난 한 학기 동안 본란에 연재되었던 '우리말을 찾아'는 참으로 시의적절(時宜適切)하고 있는 주제였다. 특히 고유어에 대한 관심은 그 용례의 회소함에도

이의 발굴과 조어 문제도 간단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점에 대한 일관성 있는 문제제기와 그에 대한 해결 방법도 모색해야 했다. 기존의 실정과 체계적인 기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자칫 우리말 쓰기에 혼란이 가중되거나 우리말이 이렇고 저렇듯 부자연스럽게 사용되어 오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이 쓰고 있는 말이 어법에 맞지 않고 표준말이 아닌 것 같은데 이를 확인해 볼 길이 없어 답답해 하는 경우가 있다.

한정된 지면에 많은 언어 현상을 거론해야 한다는 조금들이 앞서서이겠지만, 다른 내용들이 단편적인 어휘의 나열에

독자층 고려한 생활속의 '정보'되어야

블루하고 매우 돋보였다. 바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말 갈고 튀기에 애는 집필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한다.

그러나, 바람직한 소산(所産)의 일방에서 감히 몇 마디 고언(苦言)을 주저하지 않는 것은 내일을 위한 퇴계이다. 첫째, 표제어(標題語) 선정에서 대상 독자층을 고려하지 않은 점이다.

대학생 독자를 주 대상으로 하는 대학신문이라는 특수한 입장을 감안하여, 요즘 대학생들이 흔히 쓰는 말 중에서 우리말 어법에 맞지 않거나 잘못 쓰이고 있는 말에 초점을 맞추어 했다. 당장 불요불급한 어휘를 내세운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예, 1회: 신문(新聞),

그러면서도 사전 등을 통해 확인하는 작업은 소홀히 한다. 국어 사전은 불필요가 없거나, 없어도 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누구보다도 우리말을 사랑하고 정확히 구사해야 할 학생들은 사전 찾기를 습관화 해야 한다. 그 레야만 바른 언어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다. 말이 곧 사람의 인격을 생각할 때 '우리말을 찾아'는 몇 차례의 기획 기사로 필멸 인제나 우리 생활의 중요한 일부가 되어야 할 실천의 주제이다.

김 무 봉

(대학원 국문과 박사과정)

예산확보·체계적 관리로 학문연구 활성화 시급

◇ 학술지등 출판현황을 점검한다

85년전 불국점토의 이상으로 교육유국을 이루고자하는 건학이념으로 설립된 본교의 연구 활동과 학술출판이 현재 어느 정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리 긍정적이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다.

19개 각종 부설연구소와 대학원, 기타학부의 교수들이 발표하는 연구내용과 성과들이 제대로 지원되지 못하고 또 지면화 되더라도 이의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 지지 못한다면 그 연구의 가치가 반감되는 결

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본교의 출판물 및 인쇄물들의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기획과와 공보부, 학술부, 출판부 등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분야를 대략적으로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공보부는 학교소식지를 올해부터 매년 1회로 제작하며 또 신입생들에게 배포되는 '대학안내'등을 발간하는데 이의에는 거의 활동이 없거나 미흡한 실정이다.

나, 교과서 자율구입은 89년 이후이고 또 출판부에서는 '예산의 요람은 학교예산으로 무로 배부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등 요람 발간의 문제점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출판부는 현재 약 1억9천만원(90년현재) 예산으로 '보교전서' '동국학술신서' '동국총서' 및 교과서 등을 제작하고 있다. 하지만 89년 이후 교과서 판매감소로 자체수익이 현저히 줄면서 그다지 활발한 출판활동을 못하고 있다. 그외에 각 연구기관에서 발간되는 학술지와 연구지등은 13종류가 있으나 연구소 자체 예산결정으로는 발간되기가 어려운 실정에서 출판활동에 제약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교는 단국대등 다른 학교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출판부의 일괄적 출판시스템의 도입이 시급하다. 이러한 시스템 도입은 학술지등을 필요로 하는이에게 즉시 수요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일마전 '동국프로세서' 건립안이 나왔었다. 그 안속에서 위 의 요구들도 충분히 수렴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21세기 통국의 위상을 생각 해볼때 진정한 진리탐구와 불국점토의 이상을 이루기 위한 민중적인 학술정보와 연구점토의 체계적 관리와 이용이 가능하도록 학교 행정당국의 배려가 시급한 실정이다.

SPC 액 (SPC PRO-CLEAN) advertisement. Features a woman's face, product images, and text: '비교해 보세요. 훨씬 경제적이예요.' Includes pricing and contact information for SPC 액.

취재

제2의 을사조약 전시접수국 지원협정 결사반대한다

교육부

등록금 4년 예고제 '압력'

'참고서식' 통해 구체적 방안 통보  
정확한 인상을 산출등에 부정적 의견

등록금 4년 예고제에 대한 교육부의 입김에 각 사립대학 재정실무자들이 골치를 앓고 있는 가운데 본교는 등록금에 고제 시행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전국 사립대학 재정실무자들은 "근본 취지는 좋으나 실행하는 데는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재 등록금 사전예고제 시행에 대한 교육부 압력이 계속되고 있는 반면 물가인상, 인건비상승률 등 사회·경제적 불안정 요인으로 4년 등록금 예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경제불안으로 4년 동안의 물가 상승률을 예측하기란 불가능하다. 이런 상태에서 등록금 4년 예고는 등록금 예정의 '이중고'만 초래할 뿐"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한편 "그러나 교육부의 움직임으로 보아 예고제 시행에 대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교의 등록금 4년 예고제 시행여부는 오는 12월4일부터 3일간, 온양 그랜드파크에서 열리는 '전국사립대학 재정실무자 연수회'에서 타대학의 시행여부를 살펴본 후 구체적인 것으로 보인다.

학복위 동계특강 실시  
영어회화 특강등 서점에서 접수

학생복지위원회(위원장=박중우·국문4)는 오는 12월19일부터 내년 2월21일까지 8주 동안 토, 일, 영어회화, 타자, 컴퓨터 등 동계특강을 실시한다.

특강비는 어학특강 7천원, 타자 1만2천원, 컴퓨터 3만5천원, 영어회화 3만5천원이며, 컴퓨터특강은 1회 60명씩 1일 6회, 타자특강은 1회 45명씩 1일 5회, 영어회화는 1회 25명씩 1일 2회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 자료는 4년 동안의 정확한 등록금액 및 인상률 산출을 위한 선결과제로 △장·단기 학교계획 수립 △법임전임 및 기부금등 수입계획 수립 △대학별 등록금해결기구 구성 △운영등을 제시해 등록금인상요인의 합리적 예측을 위한 사전적업의 중요성을 밝히고 있다.

대학원 학생회장에 김대중조 당선  
제8대 대학원 학생회 정·부 회장에 진보적 학문공동체의 기치를 내걸고 단독임후보한 김대중(행정학 석사2)·윤영화(철학 석사) 조가 지난 22일 당선 확정됐다.

경주 2학기 학생회 사업 이완  
연계성·전문성 강화 통한 대중성 시급

경주캠퍼스 제9대 총학생회 정·부회장 선거에 즈음해서부터 학생회 체계가 이완현상을 보이기때문에 학생자치기구의 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올봄 농활, 체전등 연례행사만을 치렀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 단과대 학생회에서 도 총학과 같은 오류가 되풀이되고 있다.

과학생회의 이해와 요구를 근거로 사업을 진행해야하는 단과대 학생회는 올 2학기 과 학생회의 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보다는 단위 복지사업에만 치우쳐 한 두가지 사업만을 이루어왔을 뿐이다.

특히 의과대와 한의과대학 학생회는 자치문제에 매몰, 타 단과대 및 총학과의 연계는 물론 전체 사업과는 별도로 사업을 진행해 고립·분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도 했다.

민중당 청학위 간담회  
'민중당의 진로' 토론회

경주캠퍼스 '민중당 강화를 위한 청년학생위원회(위원장=한대영·권우수·철학4) 주최 간담회가 어제(26일) 오후5시 여학생회휴게실에서 열렸다.

아갈길이라는 주제아래에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40여명의 학우가 참가한 가운데 민중당의 진로에 대한 열린 토론을 벌였다.

학생회와 학회의 독립적 구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상시화와 총대위원회의 위상정립 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 학생회 강화와 주장은 공허한 선언적 의미를 지닐 뿐이다.

경주캠퍼스 학생회는 현 체제가 갖는 문제와 각급 기구의 올바른 위상정립이 학생회 강화, 발전의 전제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전문인자 양성을 토대로한 전문성, 연계성 담보가 학생회 강화의 첫걸음일 것이다.

수험생 편의기숙사개방  
총학, 숙소-귀향차량 제공

경주캠퍼스 기숙사(사건=이덕성·기초과장부)는 92학년도 학력고사 수험생의 숙박편의를 위해 오는 12월15일부터 18일까지 남녀 기숙사를 개방한다.

받았으며 수험생만 숙박가능하며 학부형숙식은 일체 불허된다.

학과소식

독어독문학과  
독문과 총동문의 발족을 위한 '독문인의 밤'행사가 내달 7일 오후5시 정로에 위치한 한국일보사 13층 송현로에서 열린다.

사학과 학술발표회  
사학과내 학술소모임 '탐상연구회'는 내달(28일) 오후5시 명진관(A207)에서 학술연구발표회를 갖는다.

국민윤리학과 총회  
윤리학과 1년 사업을 정리하는 '결산총회'가 내달(28일) 오후5시 명진관(A207)에서 열린다.

수학과 사은회  
수학과 4학년생들은 내달10일 오후6시 타워호텔 프린스룸에서 사은회를 갖는다.

경행과 사은회  
경찰행정학과 4학년생들은 오는 30일 오후6시 하림관에서 사은회를 갖는다.

정보관리학과 졸업생환송회  
정보관리학과는 오는 30일 오후5시 교우, 재학생, 졸업한 동문선배들과 함께 쌍용 스키아리온에서 '경찰행정학도의 밤'을 개최한다.

미술학과 졸업전  
미술학과 4학년생들의 졸업전이 오는 12월13일부터 16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열린다.

연극영화학과 실습공연  
연극과는 제254회 정기공연인 3학년 연극제작실습작품 '보이 책'을 오는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연영과 스튜디오에서 4시와 7시 매 2회 공연한다.

이번에 무대에 올려질 '보이 책'은 독일의 표현주의 작가인 '게오르크 뷔흐너'의 미완성 원작을 각색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현실에 시달리는 나약한 '보이 책'을 통해 인간의 비참한 삶과 신의 은총에 대한 회의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조건조물방화...' 강순호군 공판  
최현철군 지난 14일 출소

강순호군은 지난 14일 열린 심리공판에서 검사구형 3년을 구형 받았으며 지난 5월 5일 출소기간 중 '과업전야' 상영으로 영화상 영입 위반혐의도 함께 받고 있던 중 지난 9월3일 오후5시경 단정에서 경주경찰서 대공과

현자에게 연행됐다. 한편 지난해 5월15일 선진동 파출소타격과 관련 현조건조물방화및 화염병치레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됐던 전 학생부총장부부의 장 강순호(조경 87)군의 선고공판이 내일(28일) 오전9시30분 경주지법 제1호 법정에서 열린다.

경주 자치기구 감사 지연  
자료미제출-집행부 부재등

경주캠퍼스 제8대 총대의원회(의장=문성훈·회계4)가 3/4분기 감사의 무기한 연기등 2학기 사업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92학년도 전기대학 합격자안내

본사에서는 92학년도 전기대학 합격자상황을 오는 12월26일을 전후로 안내해 드립니다. 수험생들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전화는 동대신문사 (02)260-3491~2.

역경원 창고 방치  
시설설치 보류로

불대학생회에서 요가실습실로의 전환을 요구해 지난 4월 학교당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학생회실앞 역경원창고에 현재 관제과의 시설설치보류로 인해 별다른 용도없이 방치되고 있다.

소 교육부의장 내교  
경주 부총장과 환담

경주캠퍼스 신원재부총장은 지난 17일 소년 교육부 야고딘(Gemmadly A Yagodin)의 과과 만나 양국의 교육문제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게됐다.

미래를 쌓아가는 마음. 우리가 무심코 쌓아올린 상자들— 상자를 쌓을때 계획이 없이 무턱대고 쌓다보면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기초가 튼튼하고 안전해야만 좀 더 높이 쌓을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진리입니다. 마치 하늘 끝까지 올라간 것처럼 다시 차곡 차곡 쌓아가고 있습니다. 끝없는 작업의 연속입니다. 대창기업은 언제나 미래를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진하는 젊은이들을 주시합니다. 그들은 곧 우리의 미래이며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대창기업은 이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 대창여상의 설립 운영 •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원 • 사원들의 내집마련지원 • 체육활동을 통한 일직감 조성 • 건전기업상의 정립 • 장학문화사업의 실시 대창기업 생산원단의 종류 • 태넌, 콜텐, 우단, 스트레치, 크랭클, 나염품 등 TCE 泰昌企業株式會社 TAECHANG ENTERPRISE CO., LTD. 본사: 부산 (051) 512-2211~8, 서울사무소: (02) 733-5935~9

취재

제2의 을사조약 전시접수국 지원협정 결사반대한다

# 전시 지원 협정 반대 움직임 확산

## 반미 선봉대 항의농성...쌀수입저지 건기대회도

지난 21일 끝난 제23차 '한미연대안보협의회의'에서 서명 체결된 전시접수국지원협정(이하 WHNS)과 관련, 전대협 1백만 청년학도의 민생파탄 및 WHNS저지를 위한 결의대회가 지난 20일을 전후로 힘있게 진행되고 있다.

전을 통해 한미안보연계협의회의는 민족자주권을 포기하는 매국적인 조약인 WHNS를 체결하기 위한 회의이므로 이의 즉각적인 중단과 회의내용의 공개 및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20일) 오후2시부터 반포교 및 남산교수숙 1백50여명은 회담장소인 신라호텔까지 진격투쟁을 벌이는 도중 학생·경찰간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진격투쟁에 참가한 본교 안진용(의과2) 등 8명을 비롯 남산교수숙 학생 54명 등 총 62명의 학생이 중부·강동·서초경찰서로 각

연행돼, 이튿날과 지난 25일 각각 훈방조치 및 구류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전남대 정성환(공대 학생회장) 등은 구속됐다. 이태근·배시영 등 5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위태로운 배후와 수임개발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 주최로

지난 21일 끝난 제23차 '한미연대안보협의회의'에서 서명 체결된 전시접수국지원협정(이하 WHNS)과 관련, 전대협 1백만 청년학도의 민생파탄 및 WHNS저지를 위한 결의대회가 지난 20일을 전후로 힘있게 진행되고 있다.

이날(20일) 오후2시부터 반포교 및 남산교수숙 1백50여명은 회담장소인 신라호텔까지 진격투쟁을 벌이는 도중 학생·경찰간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진격투쟁에 참가한 본교 안진용(의과2) 등 8명을 비롯 남산교수숙 학생 54명 등 총 62명의 학생이 중부·강동·서초경찰서로 각

이날(20일) 오후2시부터 반포교 및 남산교수숙 1백50여명은 회담장소인 신라호텔까지 진격투쟁을 벌이는 도중 학생·경찰간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진격투쟁에 참가한 본교 안진용(의과2) 등 8명을 비롯 남산교수숙 학생 54명 등 총 62명의 학생이 중부·강동·서초경찰서로 각

이날(20일) 오후2시부터 반포교 및 남산교수숙 1백50여명은 회담장소인 신라호텔까지 진격투쟁을 벌이는 도중 학생·경찰간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진격투쟁에 참가한 본교 안진용(의과2) 등 8명을 비롯 남산교수숙 학생 54명 등 총 62명의 학생이 중부·강동·서초경찰서로 각

### 학술전산망 BITNET활용

#### 전자계산소 최신 정보·자료제공

본교 전자계산소는 세계대학 학술전산망인 BITNET(Because It's Time Network) 사용안내 책자를 발행, 학내 교수연구실을 대상으로 배포함에 따라 학술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BITNET은 대학이나 연구소 등의 컴퓨터를 전용회선으로 상호 접속하여 학술 연구정보에 관한 비영리적인 통신을 목적으로 하는 전산망이다.

91년 현재 46개국 1천5백여개의 유명대학과 연구소들에서 연결사용하고 있고 다른 학술전산망인 ARPANET, CSNET, MAILNET, UUCPNET 등 30여개의 전산망과도 상호자료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다.

특히 이 전산망은 사용자간 통신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별도의 요금을 부과하지않기 때문에 대학의 교수·연구원들이 경제적으로 외국의 최신정보를 입수, 각종 학술자료를 신속·정확하게 교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본교에서도 적극 활용이 기대된다.

각 연구실의 개설신청은 전자계산소(해와관 1층)에서 받으며 신청한 다음날부터 사용

본교 전자계산소는 세계대학 학술전산망인 BITNET(Because It's Time Network) 사용안내 책자를 발행, 학내 교수연구실을 대상으로 배포함에 따라 학술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BITNET은 대학이나 연구소 등의 컴퓨터를 전용회선으로 상호 접속하여 학술 연구정보에 관한 비영리적인 통신을 목적으로 하는 전산망이다.

91년 현재 46개국 1천5백여개의 유명대학과 연구소들에서 연결사용하고 있고 다른 학술전산망인 ARPANET, CSNET, MAILNET, UUCPNET 등 30여개의 전산망과도 상호자료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다.

특히 이 전산망은 사용자간 통신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별도의 요금을 부과하지않기 때문에 대학의 교수·연구원들이 경제적으로 외국의 최신정보를 입수, 각종 학술자료를 신속·정확하게 교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본교에서도 적극 활용이 기대된다.

각 연구실의 개설신청은 전자계산소(해와관 1층)에서 받으며 신청한 다음날부터 사용

### 원서접수 뒷배기

#### 우수 신입생 유치에 각과 '경쟁도 치열'

#### 무선 전화기 동원 - 입시상황 중계도

○...최근 대학입학원서접수에서는 볼 수 없었던 기이한 일이 이면에 발생해 동악에 화제라고.

대학 4년생활을 이수하고 내년이 졸업할 예정인 송치호(법명 일관·선학4)씨가 뜻하는 바(?)가 있어 경주캠퍼스 한의예과에 원서를 접수시킨 것으로 일관스님은 범주사 회장님의 제자이며 올해 35세다. 대학1년때부터 학과성적이 우수했다는 일관스님은 머리가 비상하여 중생들을 약으로써 치료하고자하는 '약사' 매혹의 원력을 세워 이번 대학입시에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원서접수장구의 맞은편에 있는 또하나의 경쟁대상이 벌어졌는데, 경주캠퍼스의 교통편과 숙박편을 이용한 신입생들을 유치하려는 관공여행사

들이 오기는 학생·학부모들의 호적행위에 열을 올렸다고.

○...원서접수 당일엔 교무과에서는 학원관앞에 4개의 컴퓨터 모니터를 설치해 각과 경쟁률을 신속히 알리는 배려를 아끼지 않았지만 수험생들의 마음은 여전히 초조하기만 했다.

○...각 학과마다 재학생들은 학원관앞에 책걸상을 설치해 놓고 우수 신입생유치에 발 벗고 나섰다는데, 학과의 특성을 살려 홍보하는 꽃이 붉히 놓여 버렸는데 물리학 과, 정보관리학과는 컴퓨터를 설치해 신입생 주소를 정리하고 건축공학과에서는 본교 모형물을 만들어 전시했으며 지리교육과는 지구본을 설치해 과홍보에 이용.

또한 모든 과들은 신입생들에게 따뜻한 커피와 차를 대

접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원서마감 당일에는 각 학과의 경쟁률을 알아보고 학부모들이 소행라디오, 무전기, 심지어는 최첨단 휴대용 전화기까지 동원하는 극성을 보였다.

○...입시경쟁에 추차경쟁도 한몫했다는 후문. 입시생의 학부모들이 물고은 자가용이 교내일원을 꼭 매워 주차장을 찾아 해매는 자가용들의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본교 DUES(교육방송국)은 원서마감 당일 접수처인 체육관앞에 임시중계소를 설치하고 1시간마다 경주캠퍼스 접수현황과 30분마다 서울 캠퍼스 접수현황을 마중시간 1시간전까지 수시로 방송해 학생·학부모들에게 큰 도움을 줬다고.

(취재부)

### 뉴욕주립대 유학생 파견 구체 합의

#### 이태근·배시영 동문이 유학장학기금 전달

기획조정실 국제부는 선별분야로 지원했던 자매결연대학 뉴욕주립대에 내년9월 유학생을 파견하게 된다.

지난 22일 뉴욕주립대 코디네이터 박성배교수와 논의결과 비교문학, 불교학, 철학분야 박사과정 1명, 마전공 박사과정 1명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본교 이태근, 배시영 동문이 뉴욕주립대 한국학연구소에 유학장학기금으로 2만만달러의 기증함에 따라 유학생 2명은 1년간 학비, 생활비를 일체 보조받게 된다.

이로써 내년 자매결연대학 식공과 30주년 기념 30일 '동문의 밤' 개최 공과대 식공공학과 창립30주년 기념 심포지엄 및 동문의 밤이 식공과동창회주최로 오는 30일 오후5시30분 리베라호텔 백계홀에서 열린다.

특히 이날 열릴 심포지엄에서는 △하와이(본교 대학원장) = 식공과 30년 회고 △신동화(65년졸·전북대 식공공과) = 유학생활과 30분마다 서울 캠퍼스 접수현황을 마중시간 1시간전까지 수시로 방송해 학생·학부모들에게 큰 도움을 줬다고.

(취재부)

파견유학생은 미국 이스턴워싱턴대 1명, 일본 대정대 1명, 독일 레겐스부르크대 1명, 미국 뉴욕주립대 2명으로 총 4개국 5명이다.

한편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열렸던 국제불교학술회의 과정에서 미국 하와이대학이

본교와 자매결연의 뜻을 밝혀 이번 유학생, 대만 문화대와 함께 국제교류에 커다란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와이대학장은 양교총장이 자매결연협정을 체결하여 실질 교류는 불교계동 연구소차원에서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선배와 친한 생각은 말라." 지난 25일 92학년도 대입 원서 접수 마감하며 재학생들의 '신인형 입시상망'이 어찌 각 부처 예산요구인이 접수되고 있는 가운데 기조실 관계자들 임금상 승률등 등록금인상 요인 에 대한 분석

○...요즘 기획조정실에서는 내년도 등록금 책정을 위한 준비로 바쁘다고. 이미 각 부처 예산요구인이 접수되고 있는 가운데 기조실 관계자들 임금상 승률등 등록금인상 요인 에 대한 분석

재단의 권력 재편 ○...본교 재단의 권력재편 완료(?)소식이 학내에 알려지자 학생회가 장기집권(?)을 모라며 반발.

지난 25일 위키회에서 열렸던 제113회 재단(사)에서 92학년도 재단이사장직을 맡게 될 재단이사장인 송치호(법명 일관·선학4)씨가 뜻하는 바(?)가 있어 경주캠퍼스 한의예과에 원서를 접수시킨 것으로 일관스님은 범주사 회장님의 제자이며 올해 35세다. 대학1년때부터 학과성적이 우수했다는 일관스님은 머리가 비상하여 중생들을 약으로써 치료하고자하는 '약사' 매혹의 원력을 세워 이번 대학입시에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 의자수난시대(?)

○...죽구열풍에 가세한 의자와 쓰레기통이 다용도선언(?)을 하고 나섰다.

등록금인상을 비롯한 교내일원에서 벌어지는 죽구열풍에 의자나 쓰레기통이 버젓이 네트 대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통행에 장애가 된다는 불만과 자괴감과 교내 환경미화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 불만을 토로하는 현실에서, 본 회전무대자 한마디 "의자와 쓰레기통이 제자리를 찾아야 하듯이 이제 죽구열풍도 구역을 정해서 하는 것이 어떨지..."

포카편속의 신인형 ○...포카를 할 줄 모르면

죽구열풍에 쓰레기통·의자만 수난... "죽구장 마련해 주세요"

신인형 맞이 준비하며 일부 선배들의 이런 작별을 이렇게 바라봐라 할지 난감.

이에 본 회전무대자 "후 내년 92학번이 포카편의 내 크호스로 등장하지는 않을지"경정.

등록금 인상이나 인하나

죽구열풍에 쓰레기통·의자만 수난... "죽구장 마련해 주세요"

신인형 맞이 준비하며 일부 선배들의 이런 작별을 이렇게 바라봐라 할지 난감.

이에 본 회전무대자 "후 내년 92학번이 포카편의 내 크호스로 등장하지는 않을지"경정.

등록금 인상이나 인하나

죽구열풍에 쓰레기통·의자만 수난... "죽구장 마련해 주세요"

신인형 맞이 준비하며 일부 선배들의 이런 작별을 이렇게 바라봐라 할지 난감.

이에 본 회전무대자 "후 내년 92학번이 포카편의 내 크호스로 등장하지는 않을지"경정.

등록금 인상이나 인하나

죽구열풍에 쓰레기통·의자만 수난... "죽구장 마련해 주세요"

신인형 맞이 준비하며 일부 선배들의 이런 작별을 이렇게 바라봐라 할지 난감.

이에 본 회전무대자 "후 내년 92학번이 포카편의 내 크호스로 등장하지는 않을지"경정.

등록금 인상이나 인하나



# 林 숲은 이제 마음속의 고향입니다

그들은 예리한 칼날이 번뜩이는 연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감자가 숲속의 친구들이 노래소리를 멈추었습니다. 부들부들 사시나무 떨듯이 이쪽 저쪽으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그루씩 한그루씩 나무들은 베어지고 숲은 조그맣게 조그맣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들은 나무들이 땅에서 뿌리뿔고, 학살 당하고, 끝났고 말았으니, 나무들과 아름다운 친구들은 사람들을 원망할 따름입니다. 이제, 사람들로부터 훼손된 숲은 사람들이 스스로 다시 살려야 합니다. 사람들 모두의 꿈과 희망은 우리를 사는 세상을 낙원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자연은 지키는 것이 우리들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자라는 기쁜 숲을 풀이 쉬고 있습니다. 나무들은 마음놓고 숨을 쉬고 싶어합니다. 우리 모두가 환경감시원이 되어 많은 공기의 수호신이 됩시다. 나무들은 수천가지 방식으로 우리 인간의 생명과 지구를 지탱해 주는 배양물입니다. 나무가 많아야 공기도 맑고 깨끗해집니다. 우리 모두 자라는 후손에게 맑고 깨끗한 공기와 울창한 숲을 물려주세요. 유한캠벌리는 나무를 심고 기우어가는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을 통해 우리의 자연을 지키고 살리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한캠벌리는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을 이렇게 펼쳐 왔습니다. 1984년부터 지금까지 1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기우어 왔으며, 산림 지원 조성기금으로 12억 여원을 산림조합중앙회에 기탁하여 조림, 목림사업 및 산길개선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157만 그루를 심고 기우어 산림지원 조성기금 2억여원으로 각종 산림사업을 지원합니다. 자라는 청소년 나무관찰대회, 여름나무 캠프, 푸른꿈나무 글짓기대회를 펼쳐 왔습니다. 4월달 한가평 한그루 나무심기운동을 매년마다 개최, 나무 사랑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설악산 국립공원 내 일간학교에서 여고생 100명과 함께 "자연은 지키는 것이 우리들 지키는 것입니다"라는 주제로 제3기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그린캠프가 열렸습니다.

숲속의 전람회로 초대합니다. 숲속에는 생명력과 활력이 존재함을 느끼게 됩니다. 조그마한 목소리들과 지극히 미미한 움직임과, 지극히 경쾌한 재잘거림과, 지극히 오묘한 숨결이 숲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태양이 높게 떠오르면 햇살의 줄기들과 덩어리들이 나타나서 점점 더 커지고, 나무 꼭대기에서 깨어나는 아침의 산들비람과 더불어 조금씩 부르르 떨기도 합니다. 숲속의 따스한 기운은 축축한 숲길과, 이끼와, 중박하는 이슬 따위의 새로운 향기들을 땅으로부터 끌어오며 숲속 특유의 분위기로 우리를 매혹합니다. 숲과 오묘한 분위기와 숨겨진 세계... 그리고 그 앞에는 신과 구름과 하늘의 풍경들... 숲속에 들어서면 살아있는 전람회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숲은 이제 마음속의 고향입니다. 어느날 숲속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건강한 체구에 큰키, 부리부리한 눈매를 가진 나뭇꾼들이었습니다.

유한캠벌리 90 유한캠벌리

문화

제2의 을사조약 전시접수국 지원협정 결사반대한다

올바른 레포트 작성법에 대해

대학에 있어 레포트는 시험만큼이나 중요하면서도 때로는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올바른 레포트 작성법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많은 학생들의 레포트작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한다. (편집자)

4년간의 대학생활을 하는 동안에 학생들이 접하게 되는 여러 과제들 중에서 레포트만큼 빈도가 높은 것도 드물 것이다. 학과에 따라, 과목에 따라 레포트 제출의 횟수에는 얼마간 차이가 있겠지만, 레포트를 준비하고 작성하는 일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전공과 상관없이 누구나 치르는 중요한 수업 과정이 되어 있다. 레포트를 통해서 학생들은 자신의 학구적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갖게 되고, 교수들은 학생들의 학습 성과를 평가할 자료를 얻게 된다. 레포트가 이처럼 학습과 평가의 과정에서 이처럼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레포트 작성의 요령과 방법을 알아두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체계적인 전문 교육을 받아보지 못하고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레포트 작성은 대단히 곤혹스러운 과제일지도 모른다. 실제로 학생들이 제출해오는 레포트를 읽다보면 어떻게 써야 레포트가 되는 것인지

“얼마나 잘 써야 A+ 받는가”

를 몰라 고심한 흔적들을 종종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레포트는 결코 쓰기 어려운 글이 아니다. 우선 교수들이 요구하는 분량은 그리 많지 않다. 짧은 글이 반드시 쓰기 쉬운 글은 아니지만, 레포트처럼 지식과 정보를 위주로 하는 글에서 길이가 짧다는 것은 가벼운 부담이다. 게다가 레포트에서 어떤 정보나 지식을 취급해야 할지는 미리 정해져 있다. 참고할 문헌이 회귀한 주제를 주고 레포트를 써오라고 하는 교수는 없다. 많은 경우, 레포트의 주제는 강의의 주제나 부교재 등에서 선택된다. 그러니까,

주제 전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서술한다. 본문부에서는 주제 자체를 직접적으로 다루면서 교수가 요구한 독서, 조사, 혹은 실습 등을 성실히 수행했음을 납득시킬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한다. 결론부에서는 본문부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하면서 자기가 다른 주제의 의의를 부각시킨다. 이러한 서론-본문-결론의 체계를 적절히 구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레포트의 주제에 대한 학생의 지식과 판단이 정돈되어 있다는 증거다. 그러나 레포트 작성에 있어서 논리 체계를 활용하는 것은 레포트

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문장들은 서로 긴밀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 나아가서는, 단락과 단락 사이에도 발췌, 반복, 반전 등의 일정한 논리적 관계가 성립하도록 배려해야 한다. 이처럼 하나의 논리적인 진술 체계를 만드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한 노력은 아주 값진 것이다. 논리적인 문장을 쓰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논리적 사고의 능력을 배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논문 서론-본문-결론 체재의 적절한 구사 바람직 1회에 그쳐도 축적물은 글쓰는 능력배양에 도움돼

교수가 전하는 문헌들을 성실하게 읽고 제대로 이해했다면 레포트를 작성할 준비는 끝난 셈이다. 레포트라는 글에 그밖의 일체의 글과는 다른 어떤 독특한 체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크게 보면, 레포트의 체계는 논문 체재를 간소화한 것에 해당한다. 보통 서론-본문-결론으로 구성되는 논문 체재는 레포트 작성에서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론부에서는 다루고자 하는 주제의 윤곽을 제시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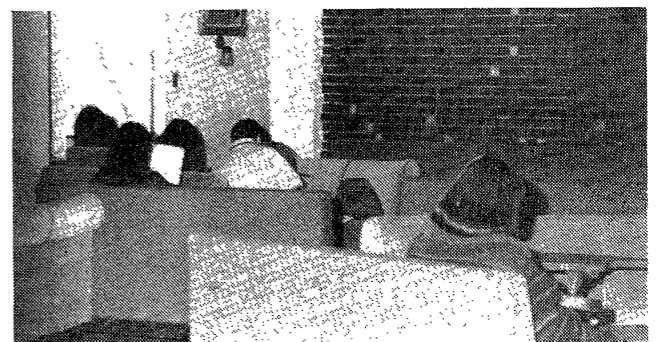
가운데 학생들이 하고 있는 것은 글쓰는 훈련이다. 레포트는 학업 취미를 위한 일회용의 글이지만, 그것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겪는 훈련의 성과들은 그것대로 축적되어 글쓰는 능력의 성장을 가져온다. 좋은 레포트를 쓰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분명히 그러한 보상이 뒤따를 것이다.

레포트를 쓰는 학생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특정 과목에서 배운 특정 주제에 '관해서' 쓰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학생들이 쓰고 있는 것은, 실은 글 그 자체이다. 다시 말하면, 독서나 실습을 통해 얻은 지식과 정보를 레포트로 엮는 것은, 실은 글 그 자체이다. 다시 말하면, 독서나 실습을 통해 얻은 지식과 정보를 레포트로 엮는 것은, 실은 글 그 자체이다.

여학생 휴게실 이대로 좋은가

‘곰남의 집’에 걸맞는 편안함 제공해야

남녀공학대학에서 여학생휴게실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남학생들과 한데 어울려 똑같이 생활해야 하는 고된 시간속에서 여학생으로서 심리적, 신체적 피로를 마음껏 풀 수 있는 여학생들의 고유영역이 바로 여학생휴게실이다. 그럼에도 본교의 경우 여학생들을 위한 휴식공간은 매우 낙후되어 있다. 본교 여학생휴게실은 계산관2층, 도서관2층, 동관4층 등 3곳에 자리잡고 있다. 이 가운데 계산관2층을 제외한 나머지는 관리소홀로 인해 ‘휴게실’이라는 말이 무색하리만큼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본교 여학생휴게실은 탁한 공기와 소파 및 탁자 부족 등으로 인해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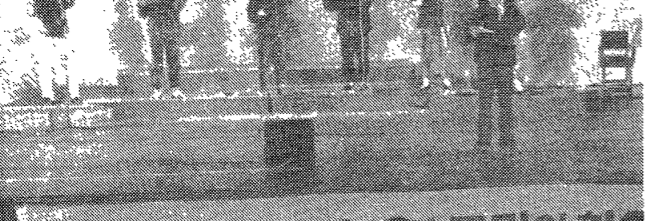
차라리 학생들은 동관4층로비, 해화관2층로비를 더 즐겨 이용한다. 도서관에는 2층, 4층 구석에 휴게실을 마련해 놓았으나 4층의 경우 남학생들의 휴먼장소로만 이용되고 있어 뛰어난 연기관이 차지하고 있는 외관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2층 여학생 휴게실을 보더라도 강의실만한 공간에 고경시킨 탁자와 의자의 자라 몇개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어 전혀 편안함을 안겨 주지 못하고 있다. 가장 오랫동안 개방을 한다는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로만 휴게실일 뿐 옥외에 있는 의자와 탁자를 바깥에 두어 난방시설이 전혀 돼있지 않아 오히려 열람실에 들어박혀 휴식없이 따

뜻하게 지내는 것이 너나 정도라는 지적도 있다. 동관4층의 경우는 학기중에는 야간강좌 여학생회와 소파·탁자 확보, 깨끗한 환경유지 등 여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현재 휴게실이 ‘여학생’을 위한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점이 많다. 도서관2층의 경우 공부라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나름대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도록 플라스틱 의자는 소파로 교체하고 또한 탁자 구비가 요구된다. 또 계산관2층 여학생휴게실의 경우 물과 마음 모두 부족할 수 있도록 소파 및 탁자 확보

여성문제 관련 잡지비치 대자보부착 필요

본교 여학생들이 가장 이용하는 곳이 바로 계산관2층인데 이곳까지 시설비축으로 인해 계구실을 완전히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81년 개관한 이래 10년이 지난 지금 파손이 심각함에도 보수능력의 안한 상태이며, 냉난방시설이 없어 마음놓고 이용할 수가 없다. 게다가 관리와 도난문제도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함을 더해주고 있다. 이곳을 여학생의 편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이번 학기부터 비디오와 TV수상기를 설치해 매주 화, 목,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30분까지 성교용, 남녀차별, 취업문제 등을 다룬 비디오를 상영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 쉬기 위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시간을 때우기 위한 장소로 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사랑하는 지식과 남편, 아버지를 차디찬 감옥에 둔 가족들의 단체인 민주화 실천가족운동협의회(이하 민가협)에서는 오는 12월 6·7일 양일간에 걸쳐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을 마련한다. 민가협과 세종대총학생회가 주최하고 세종대 대양홀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노래와 시 그리고 연극 등을 통해 양심수들의 고난에 찬 생활에 그들의 건강성, 강인의지,

양심수 석방운동... 전 국민적으로 함께 할때

라도 빠른 석방을 위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또한 출연전에 정태훈·박은우 부부가 4년만에 처음으로 무대에서 관객들과 만나게 되며 대중들로 부터 이미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한울, 안치환, 김광석 등의 민중가수들과 김남주, 도종환, 이기형시인들도 참여하고 있어 그 어느때 보다도 더 풍성하고 대중적인 무대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9일부터 힘든 생활속에서도 매우 풍부한 시간을 내서 노래연습을 해왔던 민가협이 미니합창단도 대중들에게 처음 선보이면서 정식출발하는 자리이기도 하며 또한 양심수 자녀들이 옥중의 아버지를 그리워 하면서 석방을 염원하는 내용을 담은 30여점의 그림도 지난 해에 이어 두번째로 전시될 예정이다.



김태준 (6)



무엇을 할 것인가?

1902년 레닌은 러시아혁명을 위해 인민들에게 그렇게 물었다. 왜 '무엇을 할 것인가?'를 통해 혁명조직(당) 건설을 위한 통솔을 마련했고 스탈린의 문답으로부터 15년후 지구상에 최초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해 보였다. 레닌의 물음으로부터 89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은 쿠데타의 악몽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원인을 향해 이렇게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르바초프는 최고회의 연설 며칠후 소련공산당 중앙위의 해체를 권유했다. 그리고 시장경제로의 빠른 이행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고르바초프의 답은 15년후에 무엇을 소련과 세계에게 보여줄 것인가? ▲하루는 길고 일년은 짧은 말을 굳이 빌리지않더라도 한창 남은 달력이 우리에게 무엇을 했는가를

조용히 물고있다. 격변하는 세계 정세에 조금도 뒤처지지 않게 국내정세도 숨가쁘게 변해왔다. 강경대우 타살사건을 시작으로 뜨거웠던 5월부쟁과 광역의회 선거, 수입개방과 이에 따르는 추곡수매가 진통등 몇마디의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정도로 격변하는 한

무엇을 할 것인가? 해를 보내고 있는 것 같다.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과거와 결부시켜 생각하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세움때 현재를 객관적으로 살피고 파고를 뛰어 넘어야 발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역사를 이야기할때 우리나라 정치가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것에 대해 과거청산이 제대로 이

Large advertisement for '92 Campus Journal (캠퍼스저널) featuring election information, a review by 정운영, and a list of featured authors and articles.